



LA에서 동북 쪽으로 45분 거리에 있는 10,064 ft 높이의 산 Mt. Baldy 사진: 백정현(음대 66)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해외총동창회



서정화 총동창회장

‘세계화’는 국제 사회의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가 간의 거리는 명백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국가나 기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권위와 역량을 독점해왔던 각국 정부는 이제 끊임없는 국내외의 견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국내외의 협조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교섭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조국의 발전을 위한 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성인 집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인들이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수행해 온 지도적 인재들입니다.

1991년 미주 지역의 모든 서울대인들을 대표하는 미주 동창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주 각지의 동창회 지부를 총괄하는 ‘총동창회’로서, 서울대인들의 미국 내 활약을 조력하는 한편 한미 우호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결성된 동창회 지부도 동문들에게 긴요한 회합입니다. 그러나 각국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총동창회의 존재는 서울대인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분명히 이동하고 있는 국제상황에 발맞춰, 서울대총동창회 또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2대 강대국이 태평양과 대한민국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구촌 경제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국가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울

대인들을 결집할 총동창회가 먼저 조직되어야 합니다.

제가 2014년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에 취임했던 당시, 해외총동창회는 미주동창회 외에 달리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세계 속의 서울대인들과 함께 조국과 모교를 위해 충분히 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중국과 일본에 총동창회를 창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말까지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환태평양의 중요 국가들에 총동창회를 결성해왔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상술한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동문의 성공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동창회의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모교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제적 단체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해외총동창회가 나아가야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해외총동창회의 결성과 발전에 협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부의 동창회에 걸맞은 국제적인 외연을 갖추는 데,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동량으로서 그 위상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대한 사명을 위한 35만 동문들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1-2 서정화 총동창회장/북한 핵실험/NIH 연구실장	13 미술: 피카소와 코카콜라/김영희 전시
3 홍진 동문 10만불/허병렬 50주년/장수인	14 시: 안락병실/의학: 호스피스
4 모교소식: 해외네트워크 구축	15 건강: 비만수술/거북목
5 모교총동창회 신년교례회/10명의 교수/한수원 봉사단	16-17 기획: 인내란 무엇인가?
6 사회: 한국어의 영어오염/먹는 낙만 남은 사회	18 수필: 24시간짜리 영화/의학: 두 죽음
7 장학금 감사1 & 2/동문님의 웰빙 비법은?	19 영화: 부루클린/수필: 환희의 송가
8-9 My Story & Your History	20 골리앗/작은 거인/커피테일상식
10 사회: 수석졸업자의 선택/3년째 취업준비	21 음악: 슈베르트의 '겨울여행'
11 지부소식: 시애틀/남가주 시네클럽 · 와인동아리	23-24 전자피부/투명인간/투타카멘과 파라오
12 지부소식: 개인전 김희자/조경희/Eva Oh	25-26 이달의 사진/독자의 광장/매부의 십자가

[시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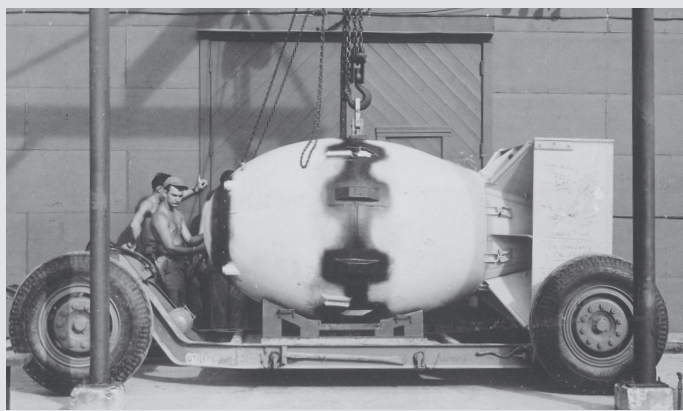
김봉전 (공대 68)

북한은 지난 1월 6일에 4 번째 핵실험을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시행했고, 수소 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적인 지진 계측으로는 리히터 스케일 5.1에 위력 15kt(한국정부 발표로는 4.8로 위력 6-9kt)으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 투하한 원자탄과 위력이 유사하다. 통상 수소폭탄은 원자탄 수십배 이상의 위력을 갖는데, 지난 2013년도의 3차 원자탄 시험과 위력이 비슷해서, 진정한 의미의 수소폭탄(Fusion)은 아니고, 대신에 증폭핵분열원자탄(Boosted Fission)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초의 원자탄은 1945년 8월 미국이 맨하탄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Little Boy(우라늄탄)이 6일 히로시마에, Fat Man(플루토늄탄, 사진)이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되면서 대략 15kt 위력으로 수십만의 인명을 살상하는 핵무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어 미국은 1952년 원자탄 100배의 위력을 가진 수소탄을 개발했다. 수소탄은 2중수소 3중수소 등을 재료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쓰는 핵융합탄이다. 러시아도 뒤를 이어 원자탄의 수백배 위력의 수

소탄 시험을 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감축협상으로 각각 수만발에서 지금은 수천 발까지 핵무기를 줄여서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 투사된 원자탄들은 Fat Man이 직경 1.5m, 길이 3.3m, 무게 4.7톤, 그리고 Little Boy는 직경 0.71m, 길이 3.0m, 무게가 4.4톤으로, 당시 폭격기 B-29로만 투사 가능했다. 유도탄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원자탄 무게가 1톤, 직경 1미터 이하로 작아져야 한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증폭원자탄은 플루토늄 핵연료 중앙 전공에 중수소 동위원소를 배치하여 일종의 작은 규모의 핵융합으로 중성자를 활성화시켜 핵분열을 증폭하기에, 더 작은 크기(최소 원자탄의 1/100까지)와, 더 효율적인 위력을 가지면서도, 훨씬 취급 안전한 원자탄이다. 미국의 핵탄도 이런 유형의 핵탄이다.

그렇다면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도 아닌데,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북한의 핵폭탄 소형화 기술

이 탄도유도탄에 탑재가 가능할만큼 진전을 보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중·장거리 탄도유도탄을 700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는 탄도유도탄에 탑재해서 장거리 목표를 짧은 시간내에 타격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에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원자탄의 소형화를 이룩하여, 의미있는 중·장거리 핵탄도탄을 소유하게 됨으로, 한국 및 일본 뿐만 아니라 장치는 미국에까지 핵위협이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한국은 현재 중·장거리 탄도탄도 없고, 원자탄 개발 연구도 없다. 그리고 개발은 미국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 동안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무력에 한국은 독자 대응할 힘이 없다. 그런데 북한이 15kt급 원자탄 1-2발로 서울 및 주요 도시를 공격해 수백만의 인명 살상과 수도권 기능을 파괴한다면, 한국과 한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더 나아가 북한이 남한에 대가를 요구하며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 결국해서 한국 안위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협이 반복된다면? 이때는 한국은 북한의 수하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도 한국을 믿음만한 자주 동맹국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 한국은 미국과의 깊은 동맹국에서 북한 종속으로, 미국의 적국으로 신분이 바뀔 운명에 처할 위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유일한 대책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로, 북한이 무모하게 한국을 핵 공격시, 그 몇배 이상의 보복을 각오하라는 위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에 북한의 핵우산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북한이 오만을

하고 핵공격을 한다던가? 한국의 운명을, 미국의 핵우산 보호에만 절대로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결국 한국의 안보는, 첫째 한국이 북핵에 상응하는 단독 대응력을 갖추고, 둘째 미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공동 대처하여 최악의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은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부담도 줄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힘드 되는 것이니까. 한국 정부 및 지도자들은 한반도 존망의 위기임을 깊이 이해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근본적인 자구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떠 오른다.. <항공우주학 박사, 한국 미래 우주정책연구원 원장, 한국 정치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KAIST 교수 은퇴>

‘NIH 메인스트림을 달린다’



성명희(자연대 86) 국립보건원(NIH) 유전자 연구실장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은 세계 보건 분야의 첨단 연구기관이다. 보건 분야 세계의 두뇌들이 모인 이곳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동문이 있다. 생물학에 수학을 접목해 신개념 생물학을 탄생시킨 성명희(사진) 동문이 주인공이다.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으로 휴대전화의 개념을 바꾼 것처럼 성 동문은 수학으로 생물학을 바꿨다.

생물학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세포를 관찰할 때 조직을 얇게 썰어 현미경에 놓고 눈으로 보면서 세포의 상태를 기록한다. 이런 전통적 방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활동을 제대로 관찰하기 어렵다. 연구자가 24시간 현미경만 보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세포의 활동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에 수학 접목...생명의 비밀 탐구 “한인 2세 인재들 기초과학계로 오세요”

성명희 박사는 현미경을 컴퓨터 연결해 세포를 실시간 관찰하면서 세포 상태를 수치와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 연구자는 첨단현미경을 작동시킨 뒤, 다음날 출근해 그래프를 보면서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세포의 변화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해석하고, 다음 연구단계로 나아가려면 성 박사의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다.

성 박사가 도입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생물 연구 속도는 획기적으로 진전됐다. 정확도는 높아졌고, 생물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도 가능해 졌다. 이 방법을 신약개발에 적용하면 제약회사들은 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 천문학적인 개발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혁신은 성 박사가 수학적 관점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생물의 활동을 수학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성 박사는 “물리와 화학, 천문학, 공학 등 거의 모든 과학이 수학을 기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생물 분야만 수학 사용도가 낮는데, 통계와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생물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학과 생물을 접목해 가르치는 대학도 드물다. 하버드대와 존스 홉킨스대, UCLA의 시스템바이올로지, 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 학과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성 박사는 설명했다.

성 박사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학의 아름다움에 놀라면서 점점 깊이 빠져드는 데, 저는 관찰할 때 조직을 얇게 썰어 현미경에 놓고 눈으로 보면서 세포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았 고 수학을 생물에 응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 국립보건원 생물통계 분야 구인공고를 본 성 박사는 지원서를 냈고, 국립보건원에 들어가 생물연구를 수학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암 연구 부서에서 연구한 뒤 지난해 9월 유전자 연구 실장을 맡게 됐다.

성 박사는 앞으로 노화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노화의 궁극증을 풀어줄 열쇠로, 주목하고 있는 ‘NF-kB’ 단백질은 면역에 있고 있다. 성 박사는 “NF-kB는 평소에는 조용히 있는데, 세포가 바이러스 등에 공격을 받으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며 “문제는 나이가 들면 NF-kB가 시도 때도 없이 가리고 수시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이다. 암환자들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미주뉴스

홍진 동문, 10만달러 동참



겨울 추위 녹인 동문들의 온정... 선한인재장학금 등 6억 보내와

최근 미주 남가주 동창회 홍진(간호 56, 사진) 동문이 모교에 '선한인재장학금' 10만달러를 쾌척했다.

1950년대 미군 간호장교로 입대, 아전병원(M.A.S.H.)과 하와이 육군병원의 간호장교로 근무하고 1973년 도미해 LA에 거주 중인 홍진 동문이 모교가 전개하는 모교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에 10만달러를 기부했다.

홍 동문은 “모교에서 보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안내문을 받고 가난했던 대학시절이 떠올랐다”며 “어려운 후배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설레기도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이었지만 항상 받은 축복과 혜택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서울대 후배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처럼 뜻깊고 의미 있는 캠페인에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모교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는 미주 동문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힘입어 더욱 모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화음보스톤첼버 대표 장수인



장수인 (음대 76)

오래전 조국을 떠나 새로이 자리잡은 이 미국땅에서,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서울대 선후배님들을 동창회에서 만나 각 지부동창회를 위한 일, 또 지역을 위한 일들을 해올 때 무한히 힘을 더해주는 우리 동문들이 계셔서 하는 모든일에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지난해 2015년은 광복70주년과 분단 70년의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였기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채워나가며 서울대인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보람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뉴잉글랜드의 화음보스톤첼버오케스트라는 기나긴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의 꿈을 지난 일년동안 세번에 걸친 '한반도시리즌서트'

로 한미사회와 의미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노유진씨와 가진 북음악회로 '역경과 고난을 이긴 한민족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5월에는 남북분단70년의 아픔이 승화된 소망의 노래, 평화콘서트로 보스톤 한인합창단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개천절 가을음악회 '아름다운 미래로...'에서는 통일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꿈꾸었습니다. 또한 첼버와 전통가야금이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을 열었고, 시리안난민돕기 음악회를 통한 자선모금으로 인류애의 사랑과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따뜻했습니다.

함께 해준 여러 동문연주자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하고, 또한 연주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수많은 서울대 선후배 후원자님들의 도

움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화음보스톤첼버오케스트라는 3월 12일 북음악회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감동의 시간을 나누며 우리 교포사회의 힘을 키우고 한민족의 자부심을 더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70년, 멋진 미래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우리 차세대가 이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위해 자부심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해가 시작됩니다. 서울대 동문들께서 앞장서서 해주셔야 할 일들이기에 이 자리에서 더욱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동문선배님들, 후배님들, 2016년도 힘내시고 꿈을 키워 나가는 멋진 발전의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뉴잉글랜드 동창회장, 화음보스톤첼버오케스트라 대표>

제25차 미주 평의원회

2016년도 제25차 평의원회
6월 25일 토요일(오전 9시) Philadelphia, PA

제5차 Brain Network Symposium
6월 24일 금요일(오전 8시 30분) Philadelphia, PA

Hotel Reservation: <http://goo.gl/6E7dYK> / 예약 마감: 6월 10일
Single bed: \$117+tax (+1 Sofa Bed) / Double Bed: \$127+tax (+1 Sofa Bed) / Tel: 610-834-8300

* 사무국 Tel: 484-344-5500 Ext. 302 / general@snuaa.org

가 모교 소식 SNU NOW

'해외 네트워크' 구축 확대 노력

11월 22일 인도네시아, 호주총동창회 승격 총회를 시작으로 11월 26일 싱가포르총동창회, 12월 5일 태국총동창회 총회가 열리는 등 지난 한 달간 네 개의 해외 총동창회가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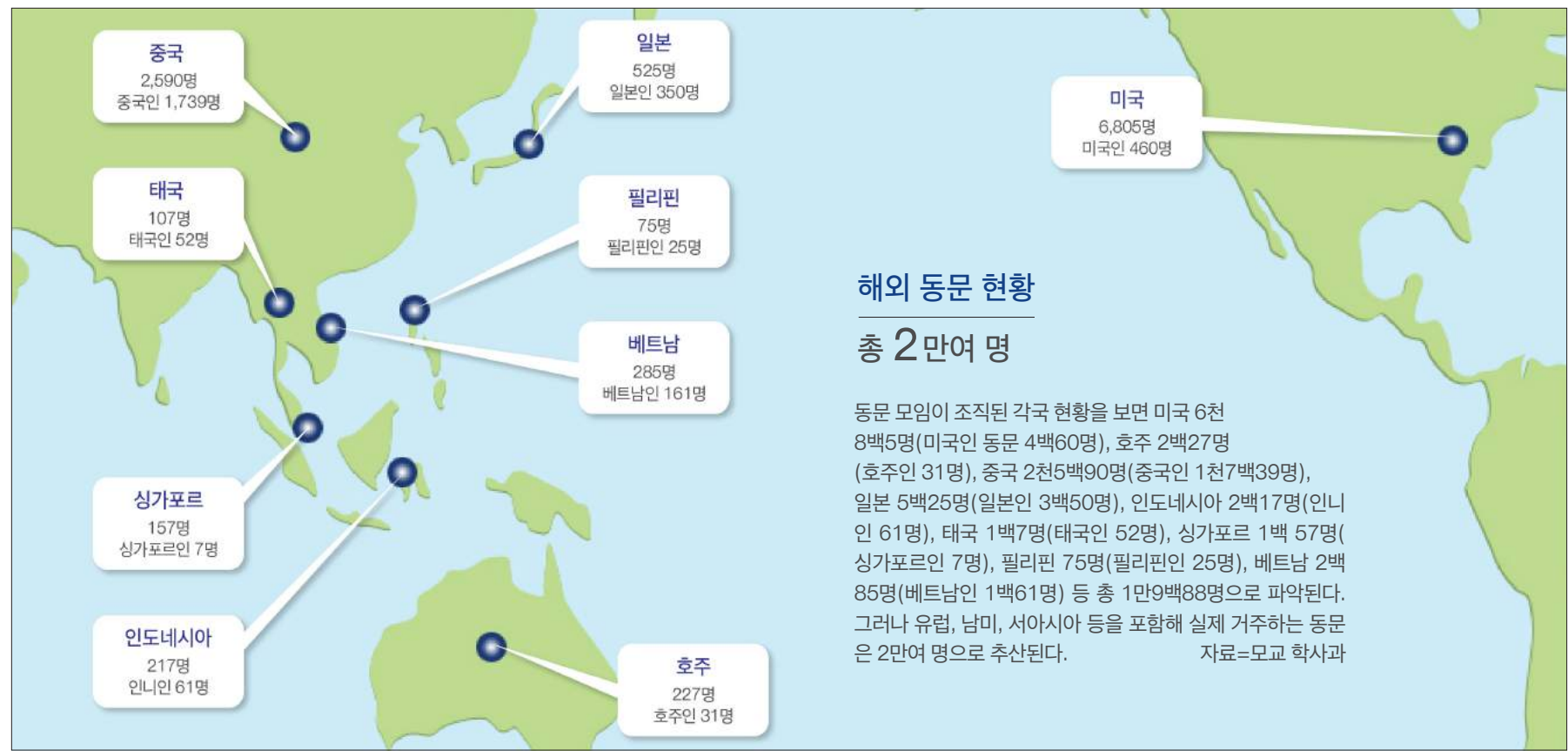
태국 골프모임인 베리타스 클럽으로 출발

지난 12월 5일 방콕 스킴빌 힐리데인 호텔에서 열린 방콕총동창회 승격행사에는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친목을 나눴다. 이날 분회 변주선 부회장은 태국동창회의 모태가 된 베리타스 클럽 창립자인 김석건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이정우 회장에게 태국동창회 승격 기념 동창회기를 전달했다. 공식행사 후 성낙제(경제 86) CJ오쇼핑 태국JV법인이자 사회를 맡아 퀴즈쇼를 결정한 경품추첨 행사가 화기에예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 모두에게 푸짐한 경품이 돌아갔다.



호주 시드니-멜버른 통합, 1백90여 회원 단체로

11월 22일에는 시드니지부(회장 정현우)와 멜버른지부(회장 송인석)가 시드니 한인 회관에서 호주총동창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송년모임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문 및 가족 80여 명과 분회 공대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호주총동창회 초대 회장 겸 시드니지부 신인 회장에 류병수(생물교육 72) 동문을 선출하고 시드니지부 정현우(화학교육 71) 회장을 고문으로 선임했다. 총동창회 회칙에 따라 향후 임기 2년의 총동창회 회장직은 시드니지부와 멜버른지부에서 교대로 맡게 된다.



인도네시아 총회 1백30여 명의 동문 참석

인도네시아지부는 지난 11월 22일 총동창회 창립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에는 각 단대별(상대, 공대, 농대, 연합대)로 에메랄드 골프장에서 대항전을 치루고, 이후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로 이동해 '2015 서울대 인니 총동창회의 비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송년회 및 창립행사를 가졌다. 저녁행사는 1부 공식행사, 창립 축하공연, 2부 골프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 행사에는 분회 김영석 부회장(외교 71)과, 인도네시아총동창회 배상경 명예회장(경제 56), 오승환 회장(경영 73), 조태영(경제 77)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비롯해 1백30여 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싱가포르 30~40대 대기업·대학·금융권 동문 많아

싱가포르 동문들은 11월 26일 싱가포르 아라마호텔 소펄물 1층 소담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승격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싱가포르국립대(NUS)와 난양기술대(NTU) 교환학생들도 참석했다. 호주 방문 후 싱가포르로 넘어온 공대식 부회장이 김중진 전인회장과 양병우 전인 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이남우 회장에 싱가포르총동창회기를 전달했다. 싱가포르총동창회는 1970년대 말 모임이 시작됐으며, 금융계, 다국적기업, 대학에 근무하는 30~40대 동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공식 회원까지 2백여 동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 모교 소식 SNU NOW

모교 총동창회(회장 서정화)는 지난 1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각계 동문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에서 공동 개최하고 발전기금에서 만찬 비용을 후원하며 총동창회와 모교의 공동 성장과 발전을 기원했다.

KBS 성세정(정치86)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서정화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 서울대는 대한민국 재발전의 핵심기관으로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며 "미력하지만 세계 각국 유명 대학의 기부시스템을 서울대에도 도입하고자 선배와 후배를 결연하는 결연장학금을 신설하고, 장학금을 수혜한 동문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후 다시 후배들을 지원하는 풀뿌리 장학금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10위권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계신 모든 동문 여러분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모교 성낙인 총장은 축사에서 "서울대



'1천여 동문 한자리 모여' 동창회 신년교례회 유공 동문 33명에 감사·공로패 수여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되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1955년 미네소타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의 서울대 의과대학 의술과 행정대학원 행정학이 도입됐는데 이제 서울대가 제3세계 국가의 동반자로 함께하기 위해 라오스대학을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이제 서울대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 통일학 연구의 메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신년사에 이어 분회 강신호 고문, 임광수 명예회장, 서정화 회장, 김영호 상임 부회장, 신영균·홍성대·이홍훈·주철기·나경원 부회장, 모교 성낙인 총장 등이 새해에도 모교 서울대와 동창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동문 모두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하기를 기원하며 참석자들을 대표해 시무떡 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발전기금 이효원 상임이사가 재단 소개 및 개교 70주년 모교 캠페인 '신한인제 이어달리기'를 소개했다. 유공동문

17명의 유공동문들에게 공로패가 주어지고, 장학금과 모교 발전 및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한 16명의 동문들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모교 음대 출신 비바중창단이 '박연폭포',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등을 불러 희망찬 기운을 북돋웠다. 분회는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으로 무릎담요를 증정했으며, 일동후디스 이금기(약학55-59 분회 부회장) 회장이 그릭요거트 음료를 협찬했다.

2015년 한 해를 빛낸 10명의 교수

모교는 지난 11월 17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320호에서 제 11회 교육상 및 제8회 학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상 및 학술연구상은 그해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친 교수들에게 주는 상이다.

SNS 활용 학생들과 적극 소통 운영관(외교1) 정치외교학부 교수	인성교육과 정애민 교육에 앞장 이상훈(해양81)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실무 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응력 높여 신완균(약학74) 약학과 교수	초대학부장으로 학부교육 모형 설계 서경호(중문71)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국 근대문학과 근대사상 원류 규명 김명호(국문72)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대 한국사회 독창적으로 이론화 장경성(사회8) 사회학과 교수	식물학연구에 화학분석 연구기법 도입 박충모(생물교육76) 화학부 교수	SCI 논문 3백40편, 특허 등록 1백35건 전기정보공학부 박병국 교수	바이오파 약효 증강 기술 확보 오유경(제약82) 제약학과 교수	어지럼증과 눈운동질환 분야 권위자 김지수(의학84) 의학과 교수

서울대-한수원 글로벌 봉사단 출발 베트남 오지마을 식수공급 개선 봉사 문화 나눔 펼칠 예정



모교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조석(사회대 외교학 77))가 함께 하는 산학협력 글로벌봉사단이 지구촌 공동체 상생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자 지난 10일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한수원 직원과 서울대학교 재학생 등 총 42명으로 구성된 '서울대-한수원 글로벌봉사단'은 베트남 빈딘(Binh Dinh)성 프억응이아읍에서 오는 20일까지 9박 11일 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봉사단원들은 프억응이아 초등학교의 식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빗물탱크 시설 설치, 정수필터 제작, 개수대 설치 등을 실시하게 되며, 초등생 대상 교육봉사 및 문화나눔 봉사를 진행한다. 특히 식수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억응이아' 읍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모래필터 설치 및 수리를 해줌으로써 수자원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한수원 직원과 서울대학교 재학생 등 총 42명으로 구성된 '서울대-한수원 글로벌봉사단'은 베트남 빈딘(Binh Dinh)성 프억응이아읍에서 오는 20일까지 9박 11일 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봉사단원들은 프억응이아 초등학교의 식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빗물탱크 시설 설치, 정수필터 제작, 개수대 설치 등을 실시하게 되며, 초등생 대상 교육봉사 및 문화나눔 봉사를 진행한다. 특히 식수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억응이아' 읍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모래필터 설치 및 수리를 해줌으로써 수자원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서울대-한수원 글로벌봉사단은 2013년 1월 '운영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2차례 베트남으로 산학봉사단을 파견해 개발도상국의 상생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글로벌봉사활동을 통해 인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평판을 높여 향후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신문>

[사회] 한국어의 영어 오염

English Contamination of Korean Language



이원택 (의대 65)

이율배반(An Irony)

제주도에 가면 '더 파크'라는 곳이 있다. 말을 타 보기도 하고 말들의 묘기도 보여 주는 말을 테마로 한 오락 시설이다. 정확하게는 'The 馬 Park'라고 써야 할 텐데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 중국 관광객들한테도 잘 먹혀 들어간다. 미국에서 간 사람들이만 어리둥절해 한다. 영어에 'Horse Show'나 'Horse Farm'은 있지만 'Horse Park'이란 말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요즘 교포 신문들 보면 모르는 말들이 부지기수이다. 다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 탓이다. '보쌈'이나 '엑기스'는 'Photo shop'과 'Extract'에서 따 온 말 같으나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 Monday'는 기사 내용을 읽어야 했고, 컴퓨터 용어라는 필모그래피(Filmography: 영화 관계 자료), 인스타그램(Instant Photography: 즉석 사진 도표), 맥스타그램(음식 사진을 올리는 SNS)은 한참 머리를 굴려야 한다.

예전에는 머리에 노랑 물감을 칠하고 유흥가를 휘젓던 재벌 2세대

를 오랜지족, 같은 황인종이나 속은 백인처럼 행세하는 쓸개 빠진 치들을 바나나 족이라 하다가 요즘은 유커족(중국 관광객, 중국어로 旅客(여객)을 유우커라 발음함) 뽀족(Noomp: not out of my pocket-필요하다지만 제 돈 내기 싫어하는 치들), 모부밍족(Mobile Show-Rooming: 매장에서 열심히 살펴보고 정작 살 때는 모바일-인터넷-쇼핑을 하는 치들) 하는데, 손발 다 들 수밖에 없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한생해서서 시냇말과 글을 들고 오신다면 놀라 까무러칠 것이다. 보랏동안 한국어는 한문 반, 언문 반이었다가 일제치하에서는 일본말이 범람하였으며 현금에는 영어 반, 한글 반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선진문명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침식과 포용은 엄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침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 다 말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고, 포용은 남의 것을 얼싸안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화교류도 주고받기이다. 문화수출과 문화수입국이란 말도 있다. 문화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와 같은 경향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달걀 삼키고 쓰면 뱀는다. 내일 잘 먹으려고 오늘 굶는 바보는 없다. 세련됨은 가장 강력한 최음제이다. 그리고 인간은 쾌락을 좇아가는 동물이다. 문화교류는 항상 농도가 짙은 곳에서 농도가 얇은 곳으로 흘러간다. 문

화란 화려한 기생 같아서 잡아먹으려 하다가 잡아먹히기가 심상이다. 한 번 물리면 암만 발버둥을 쳐도 진흙탕에 빠져 들어가는 속성이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경제이론의 정석으로 되어 왔다. 문화의 유입도 마찬가지이다.

어디쯤 왔으며, 어디메로 가는가?

Where we are, where are we heading?



서민들이 외국어를 습득할 때 욕부터 배운다. 욕은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Fuck'이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씨발'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문화가 들어올 때도 퇴폐문화부터 들어온다. '나쁜 말', '나쁜 짓'이 더 솔깃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악은 점화성과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파

괴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말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난 척하느라고 그러한 경우도 많다. 좋게 얘기하면 'Progressive Creative Thinking(점진적 창조적 생각)'이다. 인간은 누구나 새것을 좋아하고 항상 무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쓴 부류들이다. 영어가 몸과 입에 밴 사람들도 많다. 교포 신문이나 방송에서 쓰는 영어는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판 신문을 보고 한글이 영어 천지가 되어 간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곳 문화에 젖어 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다 건너서 바라보면 더 잘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뚝 떨어진 게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것인지 사투 아이러니컬(ironical)하다.

어떤가 만들려고 노력한다.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나 무엇을 만들려면 다른 것을 파괴해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후속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 외국어는 그 새로운 맛 때문에 본국어를 갈아 치울 수가 있고 비속어는 그 폭발력 때문에 상용어를 파괴시킬 수 있다. 그것도 무의식 속에서 걸로 드러나지 않게 말이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고 우리는 말(글)을 통해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과 생각은 한 물건의 결과 속이라 할 수 있다. 즉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 쉽게 얘기하면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이다.

세상은 모순투성이다. 이 사람

에서는 약이 저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돈이 많으면 불행해지기도, 얼굴이 예쁘면 팔자가 사나워지기도,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기도, 또 선과 악이 공존하기도 한다. 백 년 전에는 5살 때 천자문을 배웠다. 50년 전에는 한글 전용을 하라고 했다가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인간은 새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한것에 대한 애착심 또한 못지않다. 젊어서는 진보적이고, 늙으면 보수적이 된다. 이민 1세대는 향수병에 젖어있다. 한국적이란 것만으로도 콧등이 아릿해진다. 또한, 떠나올 당시의 사고방식에 그대로 굳어 버렸기 때문에 교포들이 제일 보수적이다. 신세대와 한국 국민은 영어 오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구닥다리 재미 '똥포'들은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다. 일단 노파심이라고 해 두자. (계속)

(한미번역문화학회 회장)

'먹는 낙' 만남은 사회



손상원 (생명과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얼마 전 <식사를 합시다>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됐다. 때 회 한 번 이상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식, 중식, 인도음식 등 메뉴도 다양할 뿐더러 주인공들이 밥을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방송을 보는 내내 식욕을 자극해 참기 힘들었다.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 지상파, 종편 구분할 것 없이 요리하고 먹는 방송, 혹은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들이 쏟아져 나온다. 셰프, 푸드 스타 일리스트 등 거창한 타이틀의 사람들이 화려한 말솜씨와 손동작으로 자신들의 이력과 요리를 자랑한다. 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먹는 방송이 많은지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였다. 요즘 방송의 트렌드일 뿐이라고 대답하며 넘어갔지만 돌아서서 고민해 봤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식과 웰빙을 외치던 매스컴이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먹방 포화의 시대를 만들었을까.

인간의 3대 생리적 욕구 - 수면욕, 성욕, 식욕 - 중 방송에서 문제없이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식욕밖에 없기에 먹방은 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 않았던가.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한 인간의 5대 욕구 중 가장 하위인 생리적 욕구 외에도 우리는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다.

최근의 한국사회를 돌아봤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안증과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보며, 이 나라에서 우리는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 또 '똥포회향' 사건을 비롯해 심심찮게 들려오는 갑질 논란은 우리네 수많은 '을'들이 존중의 욕구를 박탈당하며 살고 있음을 증명한다.

어디 그뿐인가. 급리 인화로 인한 전세난과 월세 급등, 열정페이, 청년 실업, 그리고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해 '삼포' '오포'를 넘어 이제는 '칠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많은 청년이 연애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포기한 채 꿈과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할 일부 대학교마저 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취업양성소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이제 윤리 교과서에서만 나올 법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표현 정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생리적 욕구 외에 우리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욕구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시대의 아픔을 회롱하기라도 하듯 텔레비전에서는 오늘도 끊임 없이 먹방을 선보이며 우리의 침식을 자극하고 있다. 어쩌면 이 욕구 불만 사회에서 우리는 생리적 욕구의 해소만으로 만족과 안위를 강요당한 채 배부른 돼지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먹방 포화의 세대는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미니스커트 효과의 또 다른 모습일까. 우리의 욕구를 박탈하는 사회에서 먹방은 갈수록 늘어나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눈물겹게 먹는다. 먹는 낙만 남은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이 사회가 진정으로 해결해줘야 할 우리의 욕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대학신문)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꿈 많고 호기심 가득한 EAI 장학생 2기 노은총(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지 못한 가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곧 저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제 큰 꿈은 '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좋아 소설을 써보기도 하고, 몽크 전시회에서 감명을 받아 소묘와 수채화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기타 소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기타를 배우고 교내 기타동아리를 이끌어 공연도 해보고, 스트리트댄스의 자유로움에 빠져서 팝핀 댄스와 디제잉을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흥미로 인해서 아

대한 시기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여 그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내년의 계획입니다. 어느 방향을 택하든 제 큰 꿈,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EAI 영 리더스 장학생이 도움이 되었나요?

EAI 영 리더스 장학금은 제가 더욱 자유로운 꿈을 꾸고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학업과 동시에 생계를 걱정하던 제가 장학금 덕분에 자취 비용과 생활비 등을 위해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게 되면서 학업과 진로고민 및 자아성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적인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1학년 때보다 더욱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기반으로 많은 유료 강의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제 진로고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의 도움뿐만 아니라, EAI 영 리더스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다



직 저는 제 큰 꿈을 펼칠 세부 분야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에는 제가 무엇을 할 때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 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내에서 제공하는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보아 조언을 구했으며, 스스로를 찾는 여행을 떠나며 제가 진정 즐기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제 꿈과 흥미를 일치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분야를 추려내었습니다. 그 세 가지 분야는 법조계, 교육계, 감사계입니다.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나의 방향을 정해 정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하지만, 제 인생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

양한 분야의 동기들을 만남으로써 정서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 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태해질 수 있는 시기에 저와 비슷한, 혹은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꿈을 쫓는 언니, 오빠들과 친구들을 만나 교류함으로써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기들을 생각하면 환경만 탓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자기계발에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다잡고는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해주시겠다는 EAI 연구원분들의 성원과 지지는 저에게 정

서적으로 큰 힘이 되었기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AI 영 리더스 장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듣고

2015년도 EAI 영 리더스 장학생 멘토링 캠프에 참가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것보다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과 그 떨림이 제게 지금까지도 생생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멘토링 캠프에 참가할 당시의 저는 EAI 영 리더스 장학생으로 선발되긴 하였지만 글로벌 차세대 인재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김병국 고려대 교수님, 진재욱 하나UBS 대표이사님 그리고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님의 강연을 듣고 저는 꿈에 계속 도전할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도전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는 각각의 분야와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저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목표가 크다고 겁먹지 말고 마음이 가는 것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제 진로고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비록 저는 20살밖에 되지 않은 인생웃내기이지만, 후배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벌써부터 가지고 있으면 그 얼마나 파분한 도전일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나이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되고 싶은지,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하게 묻는 주변의 질문들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떠나서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여유롭고 천천히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삶은 주변사람들이 아닌 제가 단 한번 영위하는 것이니까요.

이 말은 제 주변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모은 것으로 저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떼며 나아가요. 화이팅!

*EAI: East Asia Institute 동아시아연구원 / 이사장 하영선(외교학과 67) 모교 명예교수

- 뉴욕동창회 장학금 - 감사드립니다



김민휴 (법대 00)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거스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Rutgers University-Newark, 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재학 중인 김민휴입니다. 현재 박사과정 2년차로서 급년 2월 박사 논문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으며 봄학기부터는 시간강사로서 학부생 대상으로 행정학 개론(Intro to Public Administration)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법대를 '07년에 졸업하고 '14년 2월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러거스 대학교 박사 과정 입학 전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법대 00학번으로서 대학원생으로는 적지 않은 나이이며, 1남1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이렇게 소중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학업에 매진하여 서울대학교 문헌회 뉴욕지부 장학생의 이름을 빛내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 혁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문님의 웰빙 비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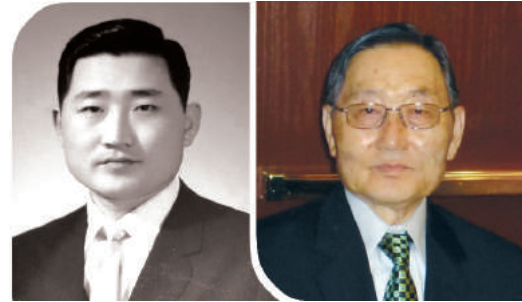
동문님만의 웰빙 비법, 3월호의 주제인 "웰빙, Well-Being"의 방법을 미주 전국의 동문들과 나눠주세요. 편집위원들의 투표로 Three Best "Well-Bing Life"에 뽑힌선 동문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50 단어 내의 짤막한 글을 news@snuua.org로 보내주세요. (16-17면 참조)

My Story & Your History

My Story &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있는 세일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일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또 다시 이곳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여러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이메일 news@snuuaa.org로 동문님의 그리운 과거사진 한 장과 현재사진 한 장 함께 보내주세요. <담당: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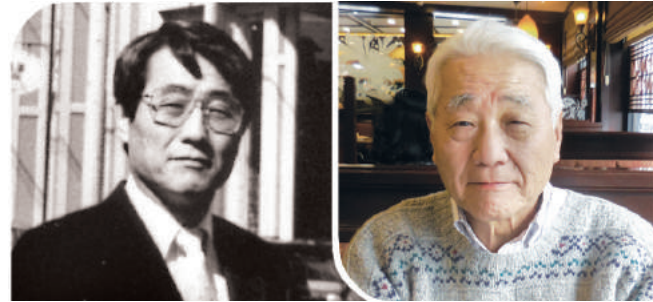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이인길(NY, 법대 54)

1.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서 1.4후퇴로 부산에서 법대에 입학했으며 법관의 길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재벌그룹에 들어가서 미국에 잠시 파견 근무 중 사표내고 의류 수입상을 시작해서 잘 나가다가 종합상사 STYLE F로 Volume만 늘리는 사업적인 재주가 없었으므로 사업을 접고 나이들어 50대 후반에 영어로 강의하는 미국 한의과 대학을 가까스로 졸업해서 면허를 갖게 되었고 현재까지 맨하탄에 남경 한의원 열고 매일 마누라의 도움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2.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걸어가면 그 길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서 많은 인복을 누리고 살아왔고 서울대학에서는 대한민국을 흔드는 많은 친구를 알게 되었고, 회사다니 때는 많은 윗분들의 도움과 좋은 대우를 받았었고 나이들어 다닌 한의과 대학에서는 영어 의학용어가 딸리는 저에게 주위에 미국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특별히 많은 배려를 해주었기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그 사람의 인생길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3. 미국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절제되어 있고 자유롭지만 제한된 법규제가 정확한 나라라는 인상, 한국에 있었다면 친구들과 같이 재벌 회사에서 사장도 되고 매일 술마시고 잘 놀다가 지금은 은퇴했을 것입니다.
4. 책은 주역, 음악은 베토벤 음악을 즐깁니다. 음식은 마누라가 해주는 음식을 제일 즐겨먹고 있습니다.
5.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TAICHI, TUINA, QI GONG 등 여러가지 건강을 위한 기법이 있지만 가능하면 TAICHI, QI GONG을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저는 지나간 일을 돌아켜서 생각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미래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의원 출근을 계속해서 저를 믿고 찾아주는 환자들과 담소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날이 좀 더 길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7. 모두들 잘 하고들 계신다고 생각하기에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도현(CT, 공대 57)

1. 61년 건축과 졸업 후 해군시설장교로 복무 후 1964년 뉴욕 칼럼비아에서 건축학 석사를 받고 지도교수였던 Victor Christ Janner 교수의 권유로 코네티컷주의 New Cannan에서 30년을 살았다. 한국에서는 전쟁 때문에 많이 이사를 다녀서 New Cannan이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한국 커뮤니티와 많이 격리되어 있었다. 지금도 코네티컷주에 살고 있으며 1975년 설립한 건축설계 사무실을 Stamford에서 아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2. 1980년 뉴욕시에서 퀸즈 Botanical Garden에 동양가든을 만들려고 일본, 한국, 중국 3개국에 노력했다. 한국정원 설립으로 디자인 관련 대상도 받았는데 예산부족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일을 계기로 QBG의 이사로 6년간 있었다. 인생 철학은 세계 모든 문화에 관심이 있는 Cosmopolitanism이고, 무신론자이지만 인간의 신빙성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3. 1964년 그 당시 Idlewild Airport로 불리던 JFK 공항에서 맨하탄으로 들어오는 Long Island Expressway에서 사진과 영화로만 보던 유명한 빌딩의 Profile을 처음 보았을 때 빌딩 하나하나를 다 알아봤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다. 한국에서 영화를 많이 보고 팝송을 많이 들어서 미국 처음 도착했을 때 마치 잘 알고 앞으로 내 인생이 살아갈 곳이란 생각을 해서 생소함이 없었다. 한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게 어릴 때부터 한국 밖으로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서인 것 같다.
 4. 여행은 가족여행으로 세계 많은 곳을 다녔는데, 지도를 보고 가보자 하면 계획없이 차를 렌트해서 그 지역을 보고 다니는 식으로 휴가를 즐겼다. 개발업체관리 계통에서 일할 때 미국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50개 모든 주를 다 다녔다.
- 좋아하는 음식은 특별히 없이 잘먹는 편인데, 스페니쉬 음식이나 그리스 음식 등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들을 좋아한다.
- 특별한 Favorite Drink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마시는 보드카 마티니 "Martini. Shaken, not stirred." 딱 이렇게 미국에서 산 이후 거의 50년을 Everyday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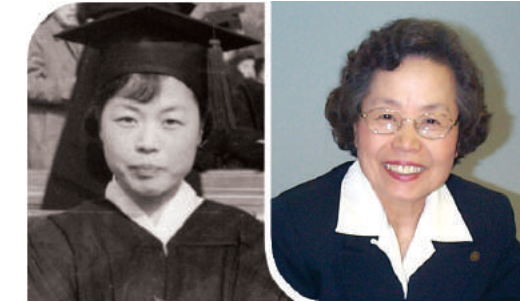
My story & your history는 모든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동문이 있으면 news@snuuaa.org으로 연락주세요.

5. 건강관리법은 항상 Normal Life를 운동과 같이 살아가면 해결된다. 고등학교 때 럭비팀 주장을 한 것으로 시작해서 1960년 서울대 아이스하키팀의 주장, 핸드볼 우승팀 스포츠와 연관된 일생을 살았다. 스포츠 때문에 미국생활이 너무 즐거웠다. Adults 하키팀에서 30년 있었고 1996년 건강상 이유로 그만둔 후 골프로 대신하고 있다. 해군시설장교 때 같이 운동하던 50년 친구 김영덕 박사에게 비싼 수업료로 배우고 있다.
- Youth 하키팀을 만들어서 NHL에서 10명 이상 선수로 보내기도 했다. Korean American Ice Hockey Association에 회장으로 있으면서 Jim Paek과 뉴욕 아일랜드의 Richard Park을 동계체전에 참가시켰고, 이번 2018 평창 올림픽에서 국가감독으로 활약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다.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재미있는 일화로 서울대 시절 같이 하키팀 하던 워싱턴의 이영목 후배를 20년만에 미국에서 반갑게 만나서 그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단하키팀에서 만난 Arthur Collins는 Real Estate Developer로 내가 독립한 이후로 사업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좋은 친구이자 멘토였다. 그가 모교인 Princeton에 만든 Palmer Square-Princeton의 Master Plan이 나의 작품이다. 후에 Collins Award 수상자가 되었다.
6. Bucket List는 현재 몇몇 친구들과 만든 DCI(Do Chung Invitational) 골프대회 13명과(8명이 서울대 동문) 우정과 친목을 다지면서 남은 여생을 잘 보내기를 원한다.
- 과거 서울대생으로 돌아간다면 건축학을 배우기 전 인문학과 같은 철학, 종교, 심리학 같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학문을 먼저 배웠으면 한다. 미국에서 석사를 할 때 교수님의 인문학적 학식이 많이 높았고, 건축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지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
7. 서울대 후배들이 너무 공부에만 열중하지 말고 운동, 문학, 인생을 인조이 했으면 한다. 또 너무 돈과 명예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인생의 직업으로 선택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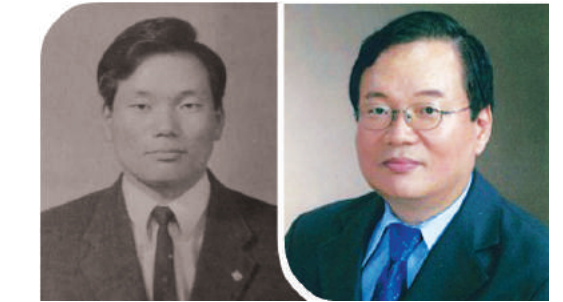
김영만(NJ, 상대 59)

1. 1973년 3월 3일 주재원으로 LA에 왔다. 다시 1979년 7월에 SK 미주본부장으로 온 후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3년 후 은퇴했다. 현재 미국은 전인 로얄뱅크 아메리카의 후속인 노아뱅크 이사장으로 있다.
 2. SK 은퇴 후 교민사회의 경제인을 돕는게 나름 의미 있는 생활이다.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60세 이후 사서삼경, 대학, 논어 등을 심층있게 공부해서 현재 매주 수요일 아침 9시 30분 은행 회의실에서 강의 겸 공부를 여러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다.
 3. 만일 한국에 있었다면 소신껏 노력하는게 힘들었을 듯 하다. 특히 한국 조직에 있었다면 정부 규제에 한계를 느꼈을 것 같고, 한국을 떠날 때 우울한 개구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했다.
- 20년간 이곳에서 배운 선진 경영이 90년대 한국이 세계화될 때 힘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70년대 이후를 미국에서 보낸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도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책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뉴욕 필하모닉의 클래식 음악, 골프, 개고기만 빼고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한다. 일본, 중국, 이태리 등 방문해 본 여러 나라들을 다 좋아한다.
 5. 50대 초반부터 도장에 다니면서 익힌 국산도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루 70분 정도 준비운동, 단전호흡, 정리운동으로 정신통일의 수양을 한다.
- 지나해 뉴욕지구 서울대 골프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나름 정신집중에 골프에 도움이 된 것 같다. 겨울은 플로리다에서 골프와 함께 보낸다.
6. 과거 서울대생으로 돌아가면 경제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보고싶다. Bucket List는 특별한 것 없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히 살고 싶다.
 7. 후배 동문들에게 서울대 출신은 최고의 간판으로 평생의 자랑거리이다. 항상 사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기 바란다. 미주 동창회에 기대가 매우 크다. 여러 동문들이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신성식(PA, 공대 56)

1. 1962년에 남편 김영우(공대 화학공학 55)와 같이 도미; PhD in Chemical Engineering, Carnegie Mellon University; R&D in Coal Gasification at Westinghouse Research Center; R&D in Clean Coal Technology at the U.S. Dept. of Energy, Pittsburgh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Retired in 2004.
- 대학원에서의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민 동기였음.
2. 첫째는 내가 미국에 온 것이고, 둘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미국에 왔기에 나는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잘 한 것 같다. 내가 미국에 와서 받은 Culture Shock을 극복하느라 한참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구김없이 잘 자랐다.
3. 나는 한국 가서 사는 생각을 할 사이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 한국에 있었다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4. 겨울이 다가오면 30여년을 즐겼던 스키를 아직도 꿈에 그립니다. 이제는 훨씬 안전한 사고춤과 Bridge를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으며,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있는 것은 색소폰이다.
 5. 나의 건강 관리는 Pre-emptive Checkup을 자주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6. 우리 딸이 서서 걷는 것을 보았으면 한다. 30여년 전, 대학 4학년때에 다발성 경화증(MS - Multiple Sclerosis)의 진단을 받은 후, 증세가 서서히 악화되어 지금은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딸을 집에 데리고 있다. MS 치료에 관한 연구가 우리들 부모에게는 너무 느리다.
 7. 골프 클럽과 같이 동창회원 간의 친목, 취미 활동을 위한 동호회를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림(NY, 상대 64)

1. 상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체이스 맨하탄 은행에 입사하여 2년 가까이 일한 후 1972년 8월 15일에 유학생으로 뉴욕에 도착하였음.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으로 4명이 살고 있는 친척의 원베드룸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되었고 전혀 영어 해득이 안된 상태로 클라스에 들어갔음. 본인의 이름을 교수가 발음을 이상하게 하여 호명이 안된 줄 알고 번번히 교수에게 출석 사실을 알렸고 속제 낸 사실을 못알아듣고 여러번 교수에게 익스큐즈 받아 늦게 내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음.
 2. 부끄러워할 것이 없이 당당하게 사는 것 - 이것은 진실된 인격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 같다.
 3. 만약 한국에서 살았다면 시인이 되어있지 않았을까...?
 4. 몇년전부터 일하는 시간을 줄인 후, 각 종교의 기원과 경전들을 비교 분석하는 일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어렸을때 보았던 한국의 무속신앙 같은 샤머니즘을 연구하고, 진리와 구원 등에 관한 각 종교를 연구하고 있다. 좋아하는 음식은 만두, 반데떡. 여행지는 유럽, 이태리, 세느강의 유람선.
- 대학때 형과 같이 갔던 세시봉, 음악감상실 아폴로에서 들던 베토벤 9번 교향곡.
5. 아침 5:30 에 일어나 108배를 하지는 못하지만 2-30번의 절(Bowing)을 운동겸 한다.
 6. Bucket List는 세계일주 특히 러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싶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시인 천상병의 인생과 그의 예술적 가치를 다시 조명해 보고 싶다. 서울대생으로 돌아간다면 봉사의 인생을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 사실 의대에 실패하고 상대를 갔음.
 7. 신설되거나 없어졌거나, 명칭이 변경된 단과대학의 졸업생과 기존 단과대학 졸업생간의 연계 작업이 미주총동창회에 의해 정비되었으면 한다. 예로 경제학과의 경우 과거엔 상대 소속이었으나 상대는 없었고 경영대가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사회과학대에 속하여 있음.

[사회] 모교 수석졸업 서상훈의 선택



크 서비스 사용 기록과 패턴 등을 활용한 심리 측정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대출해준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10%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자금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는다. 저금리로 은행 예·적금 이자가 1%대로 주저앉은 요즘, 투자자들에게 10%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34.9%에 육박하는 실질적인 고금리 대출과 물가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투자수익률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기술과 금융을 접목해 대출받는 사람의 가치를 정직하게 판단하고 투자자에게는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담아 회사 이름에 ‘어니스트(Honest·정직한)’란 표현을 넣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고 싶어”

“확장시절 아버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풍족하게 살지 못했어. 뼈가 빠지게 고생하고,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겨우 이 자리에 왔어요.”

말끔한 외모에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금수저’라는 오해를 받은 하지만, 서 대표는 자신을 ‘뼈수저’라고 말한다. 창업 후 1년 간 지하방, 폐업한 카페를 전전하고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눈치밥도 먹었다. 그는 사무실을 6번이나 옮긴 얘기를 재밌는 추억마냥 툭툭 털어냈다. 사업 초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렸다. 모아둔 돈도 다 쓰

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밥 먹을 돈도 없었다. 10년 넘게 거래한 은행을 찾아갔지만 대출 신청서조차 써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벤처 사업가라는 명함 말고는 안정적인 수입도 담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 은행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가 롤모델로 꼽는 미국의 P2P 대출업체 랜딩클럽 역시 미국 내 대형은행인 웰스파고와의 협력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낯선 제안을 하는 젊은 사업가에게 “학교는 졸업했느냐”, “군대는 다녀왔느냐”, “유사 대부업체 아니냐”며 의심부터 했다. 앞잡아 붙을까 일부터 ‘2대’ 가르마를 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안경까지 쓰고 은행을 찾아가던 적도 많았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국내 최대 은행인 신한은행이 관심을 보여 신한금융그룹의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에 선정된 것이다. 신한은행은 서비스에 필요한 이체, 가상계좌 수수료료를 모두 면제해줬다. 18일에는 어니스트펀드에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좌절할 때마다 그림 하나를 떠올렸다. 뉴욕에서 일할 때 벤처의 조건을 묻자 회사 대표가 그려준 그림이다. 단순한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나의 집합은 평가 부족해 보이는 아이디어, 또 다른 집합은 누가 봐도 좋은 아이디어다. 성공의 기회는 바로 그 둘의 교집합에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나와 동료들은 우리 아이디어에 대해 100% 확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게 불안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런 논쟁과 충돌의 순간에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앞날을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건넨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동아일보>

외고·서울대 경제학부 졸업한 나, 현실은 ‘3년째 취업 준비생’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A씨는 새해가 달갑지 않다. 그는 취업 준비를 한 지 올해로 3년째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처음 도전장을 낸 2014년만 해도 취업난은 남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외국어고 졸업하고 해외 교환학생 경험까지 쌓아 원어면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춘 데다 취업이 비교적 잘 되는 상경계열 전공에 학점도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업 한파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학력과 학점 등이 좋은 취업의 1차 관문인 서류심사는 비교적 쉽게 통과했지만 이어진 인·적성검사와 면접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다. 물론 갈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지 못한 게 컸다.

지난 2년간 50개 넘는 기업에서 ‘되짜’를 맞으며 자신감을 잃은 그는 올초 “자신감을 갖고 돌아오겠다”며 여행을 떠났다. “앞으로는 가고 싶은 회사보다는 갈 수 있는 회사에 지원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청년 실업률이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는 대학 졸업자에게 최악의 한 해였다. 국내외 명문대 졸업자조차 취직이 되지 않아 구직시장을 떠돌고 당장 생활이 막막한 청년들은 막노동판까지 내몰렸다.

청년 취업난은 서울대 출신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대 경력개발센터에 따르면 2009년 118건에 불과하던 서울대생의 취업 상담 건수는 2014년엔 688건으로 6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기업의 채용 수요는 줄었다. 서울대생 채용을 위해 찾아온 기업의 채용 상담 건수는 2011년 362건에서 2014년 262건으로 줄었고, 기업이 서울대에 보내온 채용공지 건수도 2012년 5409건에서 2014년 5158건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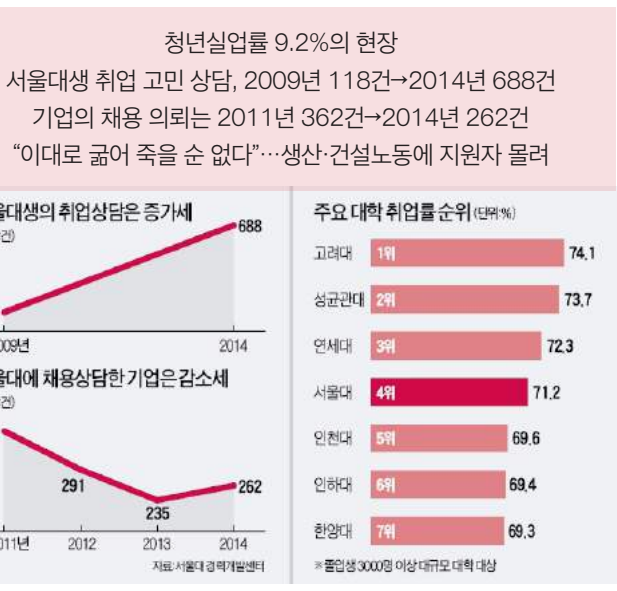
세계 최고 수준의 영구 명문대를 2014년 9월 졸업하고 귀국한 B씨도 취업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년여간 민간 경제 연구소와 공기업 등의 공개채용에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다. 결국 지난해 10월 세종시에 있는 모 국책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B씨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조건도 아니지만 근무 경력이라도 있으면 취업이 조금이나마 쉬워지길 바란다”는 막연한 기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기업의 생산직 일자리에 대졸자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다. 올해 처음 대졸자 지원이 가능해진 기아자동차 생산직이 단적인 예다. 지난 12일 서류 접수를 시작한 기아차 생산직 모집에서는 학력 제한이 없어졌다. 과거

에는 고졸과 전문대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제 대학 출신에도 문이 열린 것이다.

각종 취업사이트에서는 기아차 생산직 채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학과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자동차 정비기능사와 자동차 진단평가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뽐히기만 한다면 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공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취업을 못 한 대졸자들은 공사장과 무급 인턴을 가리지 않고 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인력급을 못 받을 뿐 아니라 현지 생활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일단 경력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중국으로 떠났다. <경향닷컴>



무급 인턴이라도 하겠다는 청년도 줄을 잇는다. 취업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도록 회사 근무 경험을 쌓겠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기업에서 무급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서울의 한 사립대 4학년 학생은 “월급을 못 받을 뿐 아니라 현지 생활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일단 경력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중국으로 떠났다. <경향닷컴>

시애틀 한인들에게 ‘인기 강좌’ 개방된다



서울대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매달 열고 있는 ‘SNU 포럼’을 앞으로 1년에 3~4차례 일반 한인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 이 포럼이 인기 교양강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회장은 지난 9일 뉴캐슬 도서관에서 열린 오프닝 행사에서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만한 주제일 경우 분기별로 한 차례 정도

씩 한인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강좌 이름도 부르기 좋게 ‘SNU 포럼’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남가주 : 시네클럽 / Wine 동아리 모임

시네클럽

지난 12월 15일 LA 한인타운 James M. Wood Blvd.에 위치한 ‘작가의집’에서 시네클럽 송년회가 열렸다. 이 클럽은 2011년 김병연(공68, 수석부회장) 동문이 운영하는 ‘작가의집’이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4년 넘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해영(공56) 동문을 중심으로 10여명의 동문들이 PARKVIEW Gallery 제2전시장(미당홀)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여 지금은 20~30명이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모이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등 답소에 이어 생일을 맞은 동문들의 생일을 축하

Wine 동아리

고 인유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그들은 이제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간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 사이의 톨로인 웜홀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4차원 여행! 모든 통신수단은 마비되어어도 부녀의 사랑은 4차원을 뛰어넘은 통신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고 부녀는 다시 상봉한다.

이 모임을 위해 이해영, 김병연 동문 등이 수고하며, 연락 등의 준비는 홍선례 동문이 담당한다. 지난 12월 15일 송년파티에서는 신정연(미61), 조재국(농66), 홍선례(음70) 동문의 12월 생일을 축하했는데, “Happy Birthday”



해 주기도 하며, 이해영 동문이 준비한 영화를 감상한다. 그동안 감상한 영화는 “클레오파트라, 퀴바디스,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초원의 빛” 등 흥분과 감동과 “설국열차, 명량, 국제시장, 암살” 등의 한국영화, 중국 무술영화, 그리고 “Frozen, Gravity, Interstellar, Martian” 등이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Interstellar”였다. 이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가 다가온다. 지난 20세기 예 범한 잘못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왔고, NASA도 해체되었다. 이 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열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이곳을 탐험해서 인류를 구해야 하는 임무가 지워졌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멀리하

노래를 부르며 촛불을 끄고 케익을 나누었다. 이어 가라오케와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모두들 푸짐한 상품을 가슴에 안고 흐뭇한 모습이었다. 김영도(공67) 공대회장과 김병연 동문이 기념품을 기증했다. 1등 상품은 항상 수고하는 이해영 동문에게 전했다. 마지막으로 25년 동안 무명가수였던 이에란씨를 하루 아침에 온라인에서 일약 스타가 되게 한 “백세인생”을 들었는데 모두 재미있는 가사여 폭소를 터뜨리며 파티가 끝났다.

이 영화 모임은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연락:213-503-6964, Email: hongsunrye@gmail.com)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한해를 보내면서 12월 29일 Cafe Avec에서 가진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혜옥 강호대 69)산하 Wine 동아리(위원장 김기형 (상대 75)모임)에 17

명이 모였다.

홍선예(전미대회장 62)동문이 테이블 꽃장식과 풍선을 준비해 와인과 어울리는 파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와인은 색깔은 볼그스름히 예쁘고 각 테이블의 달콤한 맛에 비해 순수한 맛은 있지만 술이리기보다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맛의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 크고 동그스레한 와인 잔에 향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레드 와인과 차갑고 온도를 올리지 않게 하는 조그마하고 좁은 화이트 와인잔이 적색과 미색의 조화를 이룬다.

섹시한 와인 잔은 음식을 다 삼킨 후 입술이 닿는 Lip에서 맛을 음미하며 향을 즐기고, 와인잔의 중간부분 Bowl까지 따른 것은 공간의 향과 함께 즐기기 위함이고, Stem을 잡는 것은 손의 체온과 지문을 주지 않기 위해서고, Base에 손을 살짝 대고 받는 것이 와인을 마실 때의 기본 상식이다. 스테이크는 레드와인이고, 생선은 화이트와인과 마시면 입안의 음식을 풍요롭게 하며 격에 맞는 예의가 느껴져서 좋다.

Café Avec에서 요리한 Lobster Pasta는 정말 일품이었다. 장소는 별로 그냥 Café로 보였는데 스테이크까지 맛있게 서브되어 와인과 어울리는 장소였다. 치즈와 땅콩 안주, 일품요리, 와인의 색깔, 꽃이 있는 테이블 거기에

마음에 맞는 동문들이 있다면 송년회의 파티로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Mrs.최진석(법대) 동문님께서 감 잡질을 다 벗겨 깎아온 정성이 입안의 감칠맛을 더 해 사르르 녹았다.

김기형 위원장이 초대 말씀에서 신년도 계획과 Mrs.김병연(공대68)의 아래 한 수를 선사했다.

“별서 때문고, 낡은 것들을 버릴때가 되었다. 붉은 노을의 바다로 떠내고 있다.”
“버릴 줄 아는 손이 다시 잡을 수 있을 비운 마음에 희망이 고이는 것들”
“빈 손, 정직한 가슴에 가장 마지막 내자신의 것으로 남는 체온”
“새 아침에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김동희 시인의 “저무는 시간의 끝에 서서” 중에서)

Wine & Tour 동아리는 번개처럼 만났다. 새로운 두 젊은 후배들, 황의준(상대 80), 양지훈(상대 91)과 함께. 장중 청년들이 같이 만나 좋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 열린 동아리 열린 동창회를 지향하여 윤남(이화), Jullien(1.5세)도 정식 동아리 멤버로 받아들여는 여유를 갖겠다며 내년도 사업계획: Half Price 번개 Cruise, Winery 방문 (La Montanita), 선상 파티, 동창회 자선 Gala 및 장학사업 적극 협조, SNS for W&T 등 새해의 포부를 밝혔다. 동아리는 모이다 보면 무엇인가를 이룬다. <글: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사진: 홍선예(미대 62) 전회장>

NJ

조경희 개인전



조경희(가정 72) 동문의 2회 개인전이 'Hidden Faces'라는 주제로 2월 4일부터 14일까지 Riverside Gallery, Hackensack, NJ에서 열린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주 속에서 나 자신에게 다가온 독특한 느낌을 순수하게 화폭 위에 표출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힌 조경희 동문의 부군은 신규현(상대 73) 동문으로 부부 동문이다.



Eva Oh 사진작품 전시회

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 #502 LA, CA 90010)에서 열리는 유명작가 전시회에 Mrs. Eva Oh(오흥조 본미주총동창회 전 회장 wife)작가의 수상작품들이 초대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외국인 작가와 한국인 작가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2009년 국제사진공모전(IPA)에서 유타주 앤젤름 케년에 있는 동굴에서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흑백으로 찍은 작품 'Up &

Down'으로 1위를 수상한 바 있고 그 외 여러 사진전에서 입상한 경험 많은 오 작가의 이번 작품은 지난 2회의 사진전시회에서 많은 관심과 극찬을 받아 다시 보기를 원하는 분들과 처음 보기를 원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 영콜 전시를 하게 되었다. Opening Reception은 지난 1월 23일에 열려 다수의 동문들이 축하해 주었다. 이 전시회는 2주 동안 계속 전시되어 많은 동문들의 찬사를 받았다.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LA

김희자 개인전

뉴욕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희자(미대66) 동문이 LA소재 LA Art-core(120 Judge John Aiso St. Los Angeles, CA 90012 / T. 213.617.3274)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27일까지 'Dialogue with Nature, Messages from the Wind'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오프닝 리셉션은 3월 6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and Yang)의 소리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과 마음을 관조하는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김 동문은 자연스레 생겨난 나무결에는 생사의 기록과



관주/Contemplation, 80"x24"x4", Acrylic on wood, mirrors, 2010

김희자 동문은 1980년대부터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며, 한국의 대표여성작가로 자리매김할 즈음, 1996년 뉴욕주립대학의 방문교수로 미국에 왔다. 작품에 영향을 끼칠만큼 아름다운 통 아이랜드의 풍광에 반해, 20여년 넘게 빛나는 동쪽끝 해안가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동문은 우드그레인(Wood Grain)을 이용한 자연판넬(Natural Panel)을 캔버스에 사용한다. 그의 작품은 평면회화가 아닌, 3D 구조(Structure)로, 작품구성 속에 거울이 측면, 수평 혹은 뒷면으로 들어가도록 제작되어 회화임에도 매우 독특하고 기존 회화와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풍경 속에 거울을 세워 작품을 보는 각도에 따라 움직여지는 시각적 파노라마 효과를 작품에 담아내는 김 동문은 "하늘은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로 보지만, 사람은 천가지 만가지로 분별한다"는 장자의 말처럼 모든 시비분별들이 다 사라진 마음이 빈거울이 되어 무아상태로 자연 속에 함몰됨을 느끼게 됩니다"라며 작품을 설명한다. 하늘과 땅, 구름과 바람 그리고 물과 숲의 아우라(Aura)를 느끼고 체험하며, 동양인의 우주관인 기(Chi=Energy)철학에 근거하여, 음양(Yin

같은 삶의 코드가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삽입된 거울로 인간의 마음은 은유해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공(Empty)한데, 사람마다 집착과 욕망으로 인한 희노애락이 만들어내는 망상일 뿐이란 작품 속 메시지를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김동문은 "나무결은 자연에 흐르는 기를 응집해서 이루어진 무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가진 유기체는 우주의 기에 의존하여 생노병사를 하며 그 흔적들을 담아내듯이 나무결에 찍혀진 공간과 시간의 기록을 빌려서 자연의 깊고 세심한 비밀을 드러내려고 나무캔버스를 사용합니다."라고 한다. <김원영(미대 81) 편집위원>



Exhausted, 2015, 24"x24"x3"



Mr. & Mrs. 이종도(공대)전회장, 김원호(약)이사, 김건진(문상임)이사, 오흥조(차)미주총동창회 전 회장 & Mrs. Eva Oh 작가, 박혜옥(간) 남기주 총동창회장, Mrs. 방석훈, Mrs. 김건진 / 앞줄: 방석훈(농)상임이사, 백정현(음)음대 전회장, 백옥자

[미술]

피카소와 코카-콜라



김광현 (미대 57)

대에 출생했으며 코카-콜라 역시 이때에 발명된 제품이다.

1881년, 입체주의 작가인 피카소는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출생했다. 그는 1만 4000여점의 그림과 700여점의 조각, 도자기 및 그래픽화의 작품들을 창작했다고 하나 실은 91세의 생애동안 3만 여점의 작품을 남긴 세기적 작가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창작활동을 했다.

입체주의는 후기인상파의 '폴 세잔'의 자연을 원통형, 입방형, 원주형 등으로 기존의 선과 면을 대신해 표현할 수 있다는 자연대상의 해체적 기법으로 '브라크'가 추구한 입체적 표현양식에서 유래했다. 피카소는 익살스럽게 그린 스타일링을 조롱했다는 해석으로 1957년, 프랑스공산당에서 제명되고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비판 주의자로 한국 전쟁에서 벌어진 '노근리' 학살행위의 잔

세계적인 상품, 코카-콜라와 추상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는 제품이고 다른 한 쪽은 유명한 서양화가로 1800년대에 출생했으며 코카-콜라 역시 이때에 발명된 제품이다.

한편 피카소가 출생한 5년후, 1886년,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발명됐다. 남북전쟁 참전 용사이자 아틀랜타의 한 약사로 피카소와 같은 해 출생한 '존 램버턴'(1831-1888)은 호기심에서 우연한 영감을 얻었는데 그는 각종의 약재를 조합하는 일을 좋아했다. 어느날 오후 두통을 없애는 치료제를 찾던 중, 더워진 냄비 안에서 카라멜 색의 향기로운 냄새의 액체를 만들게 되었다. 액체가 완성되자 7가지 혼액의 탄산수를 결합한 후 약국 손님들에게 시음하도록 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새 음료가 아주 특이하다는 평을 했으며 약국에서는 이 음료를 한잔에 5c씩 팔게 됐다.



램버턴의 CPA인 '프랭크 로빈슨'은 이 혼합탄산수에 코카-콜라라는 감각적인

고 음성적으로도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주고 독특한 '스크립트' 필체의 디자인 로고를 만들어 줬다.

사업가가 아닌 램버턴은 당시 코카-콜라를 많이 팔기 위한 광고, 시장전략, 그래픽 디자인 및 제품용기 개발 등에 끼치는 생각을 못 했으나 후에 코카-콜라의 곡선미의 유원한 유리병 디자인과 특이한 필기체 '로고' 및 순빨강색 등의 세련된 디자인 프로파일의 특징을 가진 용의주도하게 성공한 상품이 되어 어디든지 미국에서 사랑받는 상품으로 하루에 10억병이 넘게 판매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 되었다.

그렇다면 피카소와 코카-콜라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코카-콜라의 성공은 그 '맛'도 중요하지만 '맛'의 완벽한 결합이라 하겠다. 우연히 만들어진 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 것은 바로 '유니크'한 유리병 디자인,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로고의 도입과 순 빨강 색상 등 혁신적인 시각 디자인의 '컨셉트' 도입으로 과감한 시장 및 소비자 지향적인 전략이 주효한 것이며, 한편, 화풍으로서 피카소의 작가



작품 'Violin, Bottle & Glass, 1913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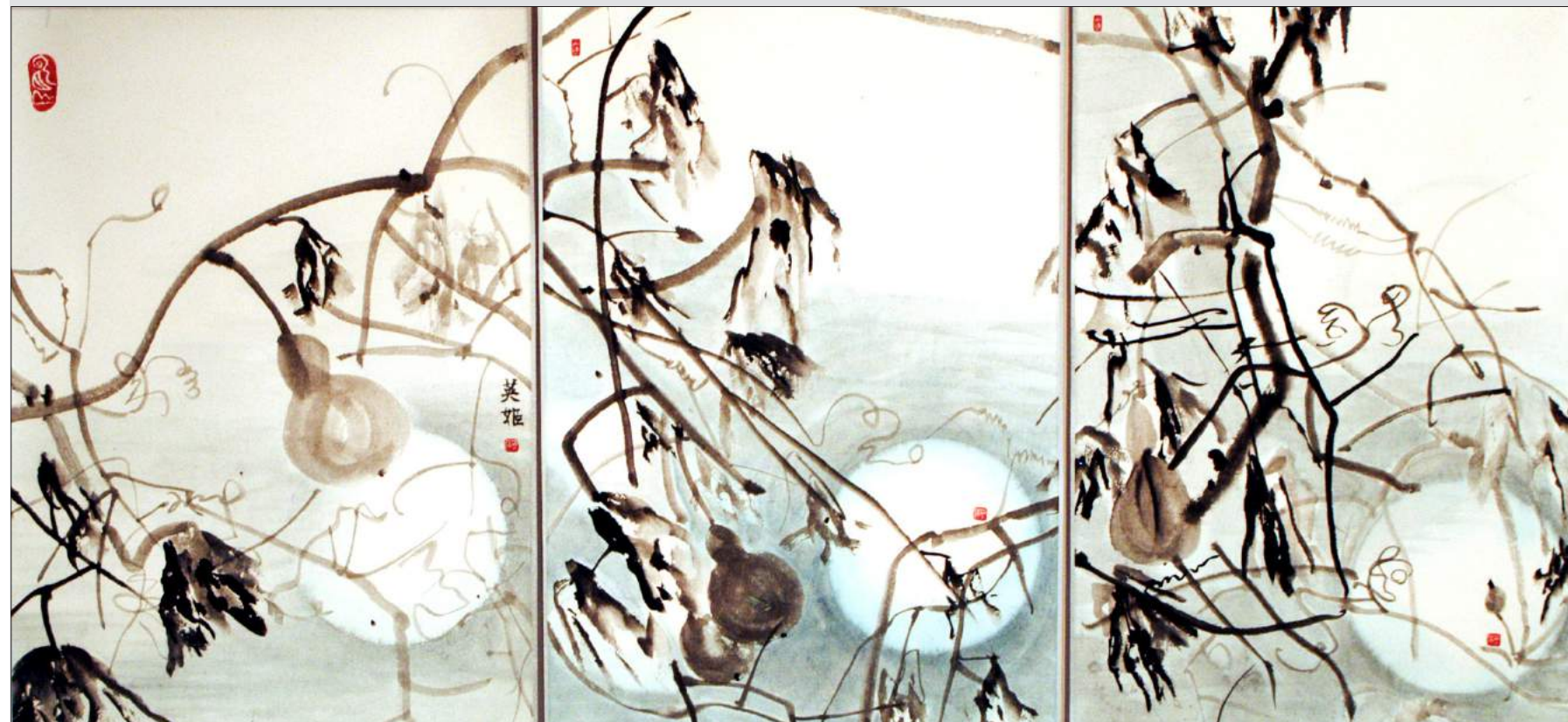
적 성공은 자연대상을 해체한 조형명인 종합적 입체 화풍의 발견이라 하겠다. '시각적 언어의 기호화'의 시도로 순수미술에서 금기시 되어온 디자인적 개념인 '덧붙임'의 '파베에 폴레', '어셈블리지' 및 '페이스 덤' 기법의 혁신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 하겠다.

피카소와 코카-콜라의 이 이질적인 두 주체가 대법한 창조성과 현대적 감각성은 시각적 큰 의미로서의 동질성과 위대함을 갖은 것이라 하겠다.

김영희 작품 신시내티 미술관에 전시

김영희(미대 65) 동문의 미술 작품이 신시내티 뮤지엄(Cincinnati Museum) Asian Gallery G13에 걸리게 되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Gourd in Moonlight'이라는 제목의 한국화(사진)로 세 폭의 그림이 모여진 작품이다.

김 동문은 69년에 동양학과를 졸업한 후 81년 도미했고 94년부터 2014년까지 Art Academy of Cincinnati(AAC)에서 Faculty로 재직했다. 작년에 작고한 조각가 Walter Driesbach로부터 1995-2013까지 사사한 김 동문은 석조, 목조 등의 조각 작품들을 제작하며 2006년에는 신시내티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했고 그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해 오고 있다. 김 동문의 부군은 이건일(의대62 졸업)동문이다.



안락 병실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실로

검붉은 가시밭 복도를 디디며 온 환자

마지막 병상에 오른다



서윤석 (의대 62)

불개미 떼처럼 모여든 아픔이

예고도 없이 나타난 절망 더불어

두려움 앞세우고 같이 늙는다

이제 오직 바라는 것은

긴축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편안함 그것이다

자연의 모습으로 너그러움으로

그만 손을 놓아주기를 기다린다

눈물이 씻기고 하늘을 받고자 한다

태어나고 떠나가는 순리의 되풀이 속에서

무거운 옷을 벗고 되돌아가는 날

주위에서 맴돌던 영혼도 떠나가고

아픔도 멈추고

수령에서 헤매던 육신에 평화가 내린다

안락병실에서

같이 아파서 땀흘리던 남은 사람들

아픔을 나누던 마음으로 그 평화를 나눈다

두 손 높이 들고 정중히 하늘을 받는다

*호스피스(Hospice): 말기의 암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남은 생존기간의 통증조절, 존엄사까지도 도와주는 합법적인 의료행위.

[의학칼럼] 호스피스, 잊을 수 없는 환자 이야기

몇 년 전부터 서구는 물론 한국 의료계에서도 말기 환자의 치료에 있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의 고통만 줄여주는 보전적 치료만 하여, 말기에 이른 환자가 필요 없는 고통,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가족의 품 안에서 고통없이 평화롭게 생을 마치게 하자는 의학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각 병원에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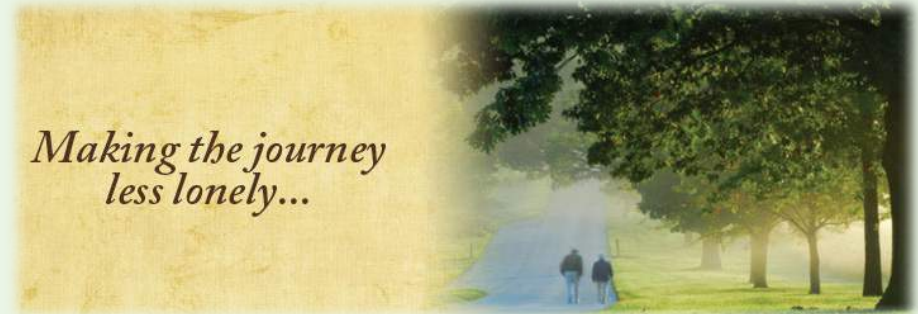
많은 경우, 특히 말기 암환자라든지 돌이킬 수 없는 심한 뇌손상이 온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노인 환자 등에서는 어떤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치료를 제공해야 되는지 의료진의 결정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고령화 되는 이 사회에서 여러가지 복합적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 고통의 환자를 치료할 때, 언제 어떤 환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고 보전적 연명 치료만 할 것인지 결정하기 매우 힘든 경우도 많다.

경험이 많은 선의의 의료진도 복잡한 노인들의 중증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을

가 왔다. 심한 심부전과 호흡 곤란으로 다시 응급실로 입원하여 기관삽관하고 호흡기에 걸어 놓았으니 좀 와서 보고 가능하면 수술을 다시 고려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심부전은 물론 폐염의 증상을 있었다.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 전문의들이 나와 함께 치료하면서, 유일한 친척인 질녀와 여러번 상의도 했다. 환자는 의식도 비몽사몽 간, 그리고 질녀도 환자 본인이 전에 수술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3월 보다 환자 상태가 나빠져 수술을 해도 환자가 살아 나갈 확률도 낮아 보였다. 약 2주 후 간신히 호흡기는 뗄 정도가 되었지만 환자는 숨을 가빠 쉬고 몹시 쇠약하여 잘 먹지도 못하고, 환자, 질녀, 그리고 모든 의료진이 상의하여 이 86세 할머니를 호스피스병동에 좀



조중형 (의대 63)



맞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보호자나 의료진에 의해 악용될 염려도 있다. 여러 가지 검사와 경험과 지혜를 모아도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우리 의료인들은 쉽게 판단의 실수를 할 수 있는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작년 3월 초에 심장내과에서 환자를 보고 판막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심부전증으로 심한 호흡 곤란이 몇개월 지속되어 온 86세의 할머니도 초음파, 심도자 검사결과, 심한 승모판 폐쇄 부전, 대동맥 판막 협착, 삼첨판막 부전증, 관상동맥도 두 군데 몹시 막혀 있었다. 젊어서 교사로 일했고 결혼한 적도 없었고 가족이라고는 먼 친척 질녀가 가끔 찾아오는 외로운 할머니였다. 젊어서 담배도 많이 피워 폐기종도 심했지만 정신은 말짱하고 웃대가 센 노인이었다.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결과를 보니 수술하지 않으면 별 희망이 없어 보였다. 위험도는 높지만 두 판막을 바꾸는 인조 심장판막치환 수술과 삼첨판막을 성형하고 관상 동맥 우회(바이패스) 수술을 환자에게 권하고 자세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였다.

한 마디로 "No" 였다.

"선생! 내 나이에 무슨 심장 수술이요? 내 생각에 내가 폐가 좀 나쁘고 비중격이 빼 떨어져 숨이 좀 차지만 심장수술은 얘기도 꺼내지 마시오. 약이나 좀 써 보겠오" 그리고는 내과에서 처방한 이뇨제 등 처방만 받고 퇴원해 버렸다."

두 달이 지난 5월초 중환자실에서 전화

두었다가 질녀와 같이 마지막을 지내도록 퇴원시켰다.

7월 어느날 휠체어를 탄 이 할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내 외래로 들어온다.

"선생!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심장 수술을 해주시오!"

환자 상태도 나쁘고 위험도도 높았지만, 나도 환자도 수술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수술이라는 마지막 결정을 하였다. 대동맥 판막과 승모판막 두개의 심판막을 폐지 판막으로 갈고 삼첨판막 성형술하고, 두 개의 새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하였다. 다섯-여섯시간 오래 걸리는 큰 수술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환자는 의자에 나와 앉을 만하게 되니, 음식 타박을 하며 간호사들을 들볶기 시작했다. 질녀에게는 화장 좀 해야겠으니 집에 있는 무슨 브랜드의 립스틱을 가져오고, 전기밥, 케이블 TV 시청료, 가스 사용료 낼 때가 되었으니 자기의 수표책을 갖고 오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이젠 주말이면 차를 끌고 교회도 가고 친구들과 식당에도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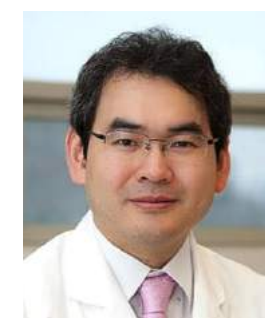
나는 생각해 본다.

5월달 의료진이 내린 호스피스의 결정은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그때 우리는 겁도 없이 엉터리같은 신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시카고 흉부외과 전문의, 현 분당서울대학 병원 외국인 진료 소장)

[건강]

구멍 하나로 비만대사 수술 가능



비만환자에게 단일절개 복강경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일절개 복강경 위소매절제술은 개복수술이나 여러 개의 구멍을 내는 일반적

인 복강경 수술과 다르게 배꼽에 3~4cm의 하나의 절개창만을 통해 수술하는 것이다. 구멍을 통해 위를 소매 모양으로 잘라 위 부피를 줄이고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술의 안전성은 물론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비만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만은 고혈압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간질환, 수면무호흡증 등 다양한 질환을 동반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여기고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비만대사수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만대사수술은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합병증, 대사성 질환의 치료 효과도 뛰어나다.

박 교수는 "고도비만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복강의 크기가 크고 복강 내 지



방조직이 많아 단일 절개 복강경 수술이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총 6명의 고도비만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며 "위소매절제술은 위 조절 밴드술과는 달리 몸속에 이물질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합병증이 적고, 소장을 우회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영양 결핍 등의 문제 또한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단일절개 복강경 위소매절제술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지에 게재됐다.

박 교수는 2015년 스프링거에서 출간하는 '고도비만대사수술' 집필에 참여해 위소매절제술 분야를 집필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3년 12월 출판된 미국 외과 교과서 '최신 수술법(Current Surgical Therapy)'에 위암 파트를 집필하기도 했다.

[건강]

거북목으로 변해가는 현대인을 위한 운동처방

방지 동영상 서울대병원서 공급 - 10만이 추천한 '매켄지 체조'



매켄지 체조 어떻게 하나

아랫목과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를 5초간 유지하는 이른바 '매켄지(Mckenzie) 체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보는 사람이 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목 디스크', 고개를 뒤로 젖히는 이 자세가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사무직 회사원과 학생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의대 82, 사진)교수는 매켄지 체조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보급시키고 있다. 이 체조는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매켄지가 고안한 운동이다. 정 교수의 동영상은 10만 번 이상 클릭됐고, 이를 따라 해 효과를 봤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목 디스크 환자는 스마트폰이 없던 2007년 57만여 명에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2011년에 78만여 명으로 뛰었다. 2014년에는 8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등장 6년 만에 목 디스크가 56% 늘어난 셈이다. 증정도도 심해져 2010년 입원 환자 3만4000여 명에서 2014년에는 7만8000여 명으로, 두 배 늘었다.

◇척추를 뒤로 젖혀 주는 매켄지 체조

목 디스크 선형 원인은 '거북목' 자세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하면서 거북이처럼 고개를 앞으로 쭉 뻗 자세를 오래 하면, 어깨와 목·등 근육에 광범위 통증이 생긴다.

이 자세는 목 척추뼈 정렬을 앞쪽으로 기울게 하여 결국 목 디스크를 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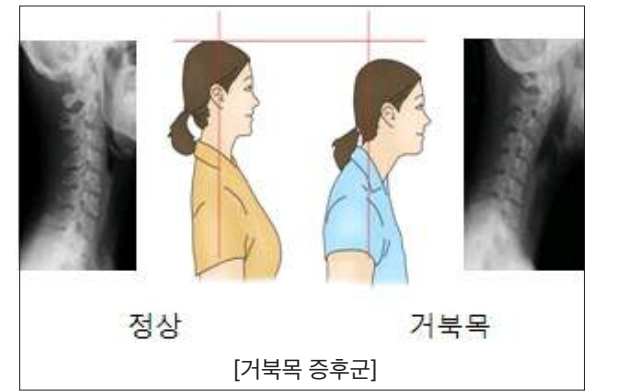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바깥 겹질과 안쪽 젤리 같은 수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수핵이 척추뼈 하중을 받쳐 주는 '물 방석' 기능을 한다. 척추뼈 정렬이 앞으로 숙여지면, 수핵은 뒤로 이동한다. 그런 자세가 만성적으로 되면 수핵은 겹질을 뒤로 뚫고 나와 척추 신경을 압박한

스마트폰 등장후 환자 56% 늘어... 예방운동법 확산시킨 것도 SNS

다. 의학적으로 '수핵 탈출증'이라고 하며, 이 상태가 흔하듯 말하는 '디스크'다. 통증은 주로 수핵이 빠져나오면서 겹질이 찢어지거나 신경을 눌러서 생긴다.

이에 목 디스크를 막으려면 거북목 자세 때문에 뒤로 빠져나가는 수핵을 앞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수핵이 앞으로 이동한다. 이런 현상을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매켄지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렇게 이름 붙였다.

정 교수팀은 최근 20대 초반 10명을 대상으로 목 척추뼈를 뒤로 젖힐 때와 가만히 있을 때를 MRI로 각각 촬영해 비교했다. 정 교수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수핵이 눈에 띄게 앞쪽으로 이동하고 수핵 무게중심도 전방으로 움직이는 것이 MRI 영상으로 확인됐다"며 "고개를 젖히



는 자세를 자주 해줌으로써 거북목과 목 디스크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분마다 5초간 어깨와 고개를 뒤로

목 디스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매켄지 체조는 먼저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활처럼 충분히 편다. 견갑골을 뒤로 치고서 담겨 어깨축지가 뒤로 젖히게 한다. 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본다. 이 자세를 5초가량 유지한다. 15분마다 1회씩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마트폰 알람을 15분마다 울리게 하면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다. 서서 일하다가도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다. 만약 고개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유발되면 통증이 유발되기 직전까지만 젖힌다. 꾸준히 시행하면 통증이 줄면서 고개를 젖히는 각도가 커진다.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도 매켄지 체조를 할 수 있다.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을 바닥에 붙이고 상체를 세워서 허리 척추뼈를 뒤로 젖힌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수핵이 앞으로 이동하여 수핵 탈출증을 줄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에 하면 좋다.

◇직장인들 '목디스크 주의보'

모든 일터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다. 사무직은 거북목증후군과 같은 'VDT'(컴퓨터단말기증후군) 질환을 비롯해 생산·제조업 종사자들은 수직절단이나 수부손상, 교사·판매직은 하지정맥류 등에 취약하다.

목뼈는 일반적으로 'C'자형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랫동안 이 같은 자세를 반복하면 목뼈가 일자로 퍼지는 '일자목'이 될 수 있다. 이는 목뼈 주변의 근육과 인대에도 무리를 줘 목디스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서울대학교병원 동영상:http://healthcare.snuh.org/hchealth/lecture/_/movedu/1258/view.do#VpkIP-krJmP

서울대병원서 동영상 보급 - SNS에 젊은층 댓글 '덕봤다'
매켄지 운동
-기립 운동
1 허리에 손을 얹 뒤몸을 뒤로 젖힌다.
2 고로 숨을 들이쉬고, 명운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한 뒤, 입으로 숨을 내쉬는 똑같은 동작을 자주 반복한다.
-엎드려서 위로 밀기
1 팔꿈치를 피고 손으로 상체를 지탱하여 올린다.
2 골반을 바닥에 붙이고 허리와 배를 아래로 눌러뜨린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를 뒤로 밀어 올린다.
3 복식호흡 하며 이 자세를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어깨를 내린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자세
-목을 자연스럽게 목바로 세운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로 15도쯤 내림
-귀가 어깨선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양손을 번갈아 조작
-눈은 중 조작하지 않고, 사용 후 먼 곳을 자주 봐 눈·근육 피로 풀어야
그레픽 = 조선일보 디자인편집팀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제25차 미주 평의원회

2016년도 제25차 평의원회 6월 25일 토요일(오전 9시), Philadelphia, PA

제5차 Brain Network Symposium 6월 24일 금요일(오전 8시 30분), Philadelphia, PA

사무국 Tel: 484-344-5500 Ext.302 / general@snuaa.org
Hotel Reservation: http://goo.gl/6E7dYK
예약 마감: 6월 10일

성 급한 사람은 포도주의 진미를 모른다."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 참고 기다려야 잘 익어서 본연의 맛을 내는 것이 포도주이다.

"참을 인"과 "견딜 내"를 합한 표현은 수와하리의 "인내로 시작하면 기쁨으로 끝난다."라는 속담과 상통한다.

다른 표현에 인내는 희망,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 대리석에도 구멍을 내는 힘, 등으로 되어있다.

블스토이는 "천재란 경멸한 인내자이다"라고 교훈하였다. **진정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김기훈 (상대52) CT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가?

자신과 사회에 좋은 일인가? 종종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다. 비겁하거나 웅졸한 행위가 되거나, 부작용이 심각해서 안 참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당장 참는 고통 이외로 나중에 치루는 대가까지 숙고해 볼 일이다. 인류 역사 발전은, 한 관점에서, 참기를 거부한 용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김상순 (상대67) OR

우 리나라 속담에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말을 나는 인정한다. 인내는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는데 적용된다고 믿는다. 인내는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된다.

William Shakespeare는 좋은 말을 했다. "How poor are they who have no patience! What wound did ever heal but by degrees?"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련한가! 도대체 무슨 상처가 점진적으로 아물지 않았단 말이가?"

성경은 "인내로 주님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야고보서 1:12) 읍의 인내는 우리가 따라 가야할 인내의 모범일 것이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다.**

배효식 (문리52) CA

인 내는 낙원의 문(門)을 여는 열쇠다. -터키 속담 1분의 인내(忍耐)로 10년의 평화를 누린다. -그리스 속담 변역이 오면 조심하고 역경이 닥치면 인내하라. -네덜란드 속담 예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노력이 따르지 않고 존경을 받게 된 사람은 없다. -뉴우튼

인내에 대한 말을 열거하자면, 이와같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나에게는 늘 문제(問題)로 떠오르는 의문(疑問)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내를 칭송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내를 실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다.

이상봉 (문리65) PA

나는..무엇을 얻었나...?
나의 삶에 있어 소중한 말 인내란...

한 인간이 살아가며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을 견디어 내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한 인간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지나야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더 큰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말처럼 앞만 보고 뚝뚝 걸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면 평화롭게 쉴 곳이 있기 때문이다.

김원영 (미대81) NY

참 아서 좋은 것... 여러가지 보이네요
참아서 나쁜 것... 생각나지 않네요

노인규(의대52) MA

인 내란? 참을 수 있는 것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은것이라고... 화날것 같은 것을 참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actice your patience is to count 100 before any emotional outburst.

이형열 (법대57) NC

인 생을 살아 오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할 때에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함을 실감한다.

원만하지 못한 자신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 상황을 깨닫고 믿음으로 용기와 의지력을 얻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심이었다고 생각한다

고일식 (보건69) RI

한 자발 인내는 "참을 끈"과 "견딜 끈" "끈"은 칼날(刀) 밑에 마음(心)을 놓은 형태이다. 즉 인내란 것은 가슴을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견디는 것이 된다.

나 도 여러 차례 닦았던 어려운 障礙物과 人生破滅의 위기를 忍耐로 극복하고 피해 온 덕에 남들이 못다니는 서울대도 다녔고 미국까지 와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 오고는 있으나, 忍耐하면서 받은 상처의 후유증으로 자주 고통스러워 한다.

忍耐의 열매가 달다고 누가 그랬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忍耐의 열매는 忍耐보다도 훨씬 더 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면 남몰래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항상 똑같이 들려오는 응답이 있다.

그것은 "그 쓴 열매를 삼켜라"이다.

이석호 (공대66) CO

耐 忍

기나긴 기다림에 시간...

인 내는 무관심이다 왜냐하면... 너무 참으면 가슴이 아프니까..

백옥자 (음대71) CA

인 내란 하나님 이다 하나님만큼 인내가 크신 분은 안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정화 (음대88) IL

忍 耐란 사랑이다 사랑을 오래하고... 모든것을 견디는나라 (고린도전서 13장) 김경희 (가정대기) PA

기다린다는 것 기다려야 한다는 것 기다릴거라는 당신의 한마디...

참아보면

아까워도, 암 아까워 죽겠어도 좀 있어보면

분한게 있어도, 암 분해도 좀 두고보면

억울해도, 암 억울하대도 좀 참아보면

금새란다/금새 라구, 별것도 아닌거로 좀 있어보면/암것도 아니라구

금방이란다/금방 이라구, 암것도 아닌거로 좀 두고보면/별것도 아니라구

그러기/잠시 잠깐 이라구, 암 억울했어도 그저그냥 옛그제 너로 좀 참다보면/그래 넌 잘한지 이라구

여기/우리, 예까지

말발뽀사단원고충 없었으면/그중지만 열정 다하고 사랑 쌓았잖으면

그러며 힘들면, 먼산보며 하늘보며 열정/사랑 그것 만으로

그런데 마다, 언제쯤 우리 그러며 나중 다모여서 성취한 훈장/화알짜 웃는 얼굴들 그때로 총총한/늑슬잡는 화안한 얼굴 기껏 부르려/고래고래 열정 노래 기껏 사랑 사노래

힘들었으면, 하늘보며 먼산보며 그동안 열정/참음으로 익숙한 사랑.

이흥빈 (의대57) NJ

나 에게 인내란 자존심이다. 인내란 하고 싶은 행동을 참는 것이다.

대학 입학 후 피기 시작한 담배를 20여년이 지난 후 내가 우습게 본 지인이 공짜 주간지에 실린 "담배 끊는 법"을 읽어 보란다. 이 글을 읽지 않고 "아 저 친구가 담배 끊었다고 날 우습게 보고!!" 다음 날부터 금연을 하는데 얼마나 피고 싶던지?

"참자.참어! 내 자존심 문제다." 결국 단 한번 결심에 금연 성공.

홍경삼 (문리61) CA

인 내를 생각하다보니 여러가지의 경우들이 떠오르고... 에겐데 에베레스트 정상등정이나

마라톤 완주같은 순수한 목적을 이루기위해 고통을 참고 견디는 적극적인 극기도 있었고,

퀵바디스에서나 김대건 신부처럼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순교도 있고,

복수를 위해 그 대상에게 오랫동안 증오를 숨기며 외신상당하는 부정적인 절치부심 등등...

서영석 (문리61) CA

나 에게 인내란? 아이를 통해 배운 고통스럽지만 소중한 삶의 교훈이다.

만약 내게 엄마란 이름이 없었다면, 무언가를 이처럼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능력을 배우지 못했으리라. 사춘기 자녀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켜봐줄 수 있었던 힘은 분명 인내의 열매다. 처음에는 눈과 귀와 입을 닫는 수동적인 참음에서, 점점 견뎌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능동적 인내를 배울 수 있게됨이 감사하다.

한정민 (농대81) VA

[수필]

스물네시간짜리 영화



문병길 (문리 61)

잡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 하루 그 친구는 이 세상에서 못해보는 '하루짜리 영화'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제목의 영화에는 제 주변에서 벌어진 모든 움직임, 내용, 바람소리, 말 소리들이 어떤 것은 기억 속에 담겨지고 어떤 것은 벌써 잊혀진 채 유일한 오늘 날짜 제목 한 편으로 이 밤에 묻힙니다.

이 한 편의 영화는 세상을 무대로 저 스스로가 주연과 연출, 감독을 감당하며 만든 작품으로, 숨쉬며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만드는 한 편의 작품입니다만 먼저 간 그 친구는 만들 수 없습디다.

살아있음으로 '오늘'을 제작하고 감상합니다. 그 친구와 더불어 못 만들어 아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착하게 살다 간 그 친구는 지금 저 위에서, '미안해 하지 마. 나는 여기서 너의 24시간짜리 활동사진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다' 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알리 없지만 버튼만 누르면 내게 내일 일어날 일도 모두 보이거든. 여기 와 보니 너, 나한테 고등학교 때 교약한 장난 많이 했구나' 하며 손 바닥 거울 보듯 저를 내려다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일 낚시에 한 마리도 낚지 못할 것을 미리 안다면 나들이 준비하느라 설레는 기쁨이 없겠지요. 잔뜩 낚을 것을 미리 안다면 입질하는 물고기와 실랑이할 때마다의 흥분이 반감될 것이고요.

내일의 결과물을 하늘에 맡기고 얻는 평은과, 알리고 안간힘 쓰며 가지는 번뇌, 어느 것이 나올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내일 벌어질 상세한 일은 '모른 채' 잠 속에 빠지는 게 나를 것 같습니다. 설령 번뇌함으로 내일의 아픔을 피할 수 있다 해도 승산 없는 번뇌로 매일 기진하기 보다는 아픔을 맞겠습니다. 아픔이 전혀 없는 인생은 그런 생 자체가 번뇌로 얼룩진 아픔일 것 같으니까요. 어찌 보면 죽음은 일생 치르는 마라톤의 결승 라인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 트랙을 달리는 선수는 저 하나뿐이니 열심을 다해 달린듯 게을리 달린듯 등수가 없을 뿐입니다. 등수가 없으니 어찌 달려 왔는지에 점수가 매겨지는 마라톤일 뿐이겠지요.

매일 저 혼자 주연인 이 하루짜리 영화를, 그것이 조각이든 수작이든,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만들 기회가 주어지는 이 작품을 오늘도 감사히 연출하면서 먼저 간 친구를 생각합니다.

[의학칼럼]

두 죽음



김병석 (의대 53)

며칠 전에 한 고양이가 두 집 좁은 벽 사이에서 죽었다. 크막한 몸통이 온 동네를 돌아다녔던 검은 고양이와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집 강아지와 기루기를 하기도 했었다. 두 이웃은 시체 치우는 것을 꺼려 서로 그쪽 집에서 죽었으니 그 집에서 치우야 한다고 욕심각심 했다. 이

것을 지켜보고있던 제 삼의 이웃 사람은 양쪽집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나 양쪽 모두 책임이다. 한 집은 왼쪽 다리를 치우고 다른 한 집은 바른 쪽 팔을 치워야겠다고 농담을 했다. 결국 시청 청소차가 시체를 치워갔다.

사람도 연구자 없이 집 밖에서 횡사를 하면 이 비슷하리라. 자신의 죽을 준비와 죽은 후의 장례 준비도 해 놓을 필요가 있음도 새삼 느끼게 했다.

마침 이 무렵 불란서 파리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시민 대량학살 사건이 있었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량학살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죽음을 보며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연상이 펼쳐졌다. 한국전쟁때 본 수많은 시체들, 역사상 몇 차례 세계대전, 911 테러와 여러나라에 계속되는 테러가 악화 일로를 가고 있는 살상, 미국내 대량 총기 살인극... 다른 한편 일년에 수만명씩 자기자신을 죽이는 자살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 죽일까? 타살과 자살은 남이나 자신의 육체기능을 파괴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로 결과가 죽음이다. 모든 생명은 늙으면 자연적으로 죽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연적 과정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괴할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두가지로 종식시키는데 하나는 육체기능,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정신, 영혼이다.

법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문제삼지 않는다. 고의로 남을 살상하면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일급 살인죄가 적용되며 그 벌은 각양각색으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서 살인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도 대단히 흥분한다. 남의 육체를 죽이지 않더라도 고의로 상해를 입혀도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다. 이 사회에는 남의 육체에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의 정신 영혼에 상처를 입혀서 다른 이의 실제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자에게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신체에 입은 상처보다도 오히려 크고 견디기 힘들며, 그 사람의 체면, 자존심, 긍지, 명예 등 그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물론 이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것을 감수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실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이나 체면을 세우고 자기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남의 영혼을 해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소위 정치인들만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예를 접한다.

한 좋은 예로 헛소문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배우자를 내쫓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자기를 버렸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했다는 사실조차도 수직사



롭게 느껴 그 사실을 숨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우자를 내쫓았을 경우에는 자기 거짓 소문을 급히 세상 방방곡곡에 활발하게 퍼뜨리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남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와 달라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아 체포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고소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력과 비용 때문에 이런 일로 민사소송하는 일은 거

의 볼 수 없다.

각자의 생각과 인격과 처지에 따라 이런 헛소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소문 퍼뜨리는 사람을 책망하고 자제시키며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문 퍼뜨리는 사람에게 동조해서 같이 소문을 퍼뜨린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들으면 객관성을 잃고 신이 나며 특히 사교적 모임에서 공통화제로 재미있게 부풀려 댈다. 이런 소문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심리적 문제나 욕구를 충족 시키려고 소문을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공범자가 되며 그 죄값은 범인과 똑같이 취급된다.

이렇게 헛소문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은 결국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이 고통스러워 그 짐을 덜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세상사람들에게도 공개 사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들은 생각하겠다. 그러나 처음 동기가 자기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생할 수는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껏 해본다는 것이 성직자에게 고백하는 정도이다. 아마도 종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성직자들은 이런 고백을 받으면 피해자한테 가서 직접 사과하라고 충고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해성사나 하고 경을 위우면 죄가 씻어진다고 한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고 이 사람의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를 회복하는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정신분석에서는 반작용 형성(Reaction Formation)이라는 무의식적 기전을 말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용납될 수 없는 마음 속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즉 죄의식 같은 것을 숨기기 위해 그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겉으로 과장해서 나타낸다는 현상을 말한다.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 반작용 기전으로 마치 천사처럼 행동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종교에 귀의한다. 물론 이것은 자기 기만이다. 많은 분별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 이 사람을 천사같은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교직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교구를 위해서 이용한다.

정신과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늘 느껴온 것은 사람들이 육체에 치우쳐 신경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즉 정신을 등한히 한다는 사실이다. 이때문에 세상은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불가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똑같이 마음을 써야 하며 이 세상을 바로잡고 바로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 마음을 더 써야 할 것으로 믿는다. 눈에 보이는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작용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신과 정신분석 전문의)

[영화]

BROOKLYN



나두섭 (의대 66)

에 관한 이야기이다.

과학적 통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현모양처 스타일의 여인이 많은 나라는 폴란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옛날영화인 '피서지에서 생긴 일'에 나온 Sandra Dee가 폴란드인이었다. 아일랜드도 이런 여인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Eilis인데 지역으로는 실제로 Irish American인 Saoirse Ronan이 나온다. 21살인데 뉴욕시에서 나서 아일랜드에서 자랐고 최근에는 다시 뉴욕시에서 살고 있다. 'Atonement'라는 영화로 13살에 최연소 아카데미 여우조

연 Tony가 떠나기 전에 비밀리 결혼을 하자고하여 둘만의 결혼을 하게 되었다.

Eilis는 아일랜드에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엄마의 계획으로 Jim이라는 체격이 좋고 미남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또한 재산도 많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멋있는 남자도 생기고 장부기록공부 덕에 일자리도 생기고 해서 아일랜드에서의 장래가 예전에 느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Tony에게서 온 편지들은 뜯어보지도 않은채 쌓여 가고만 있다. 그런데 작은 마을이어서 Eilis가 이미 결혼했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밝히고 다음날로 Brooklyn으로 떠났다. 입국시에는 자기도 새로운 이민자에게 조연도 해주었다. Eilis와 Tony는 다시 만나 (원작과는 달리) 행복하게 뜨겁게 포옹하며 이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의 주제는 새로운 정착지 미국의 뉴욕시와 자기가 나서 자란 정들었던 아일랜드, Brooklyn에서 만난 이태리계 첫사랑과 Ireland에서 만난 미남의 부유한 아이리쉬계 청년, 둘 사이에서 어느 쪽



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남자들이 보기만하여도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름다운 여인이다.

Eilis는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주말에 가게에서 일하며 살다가 언니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하게 되었다. 배밀미, 식중독 등을 겪었지만 다른 여편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국하여 아이리쉬계 이민자가 많은 Brooklyn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숙집 같은 곳에서 지내며 백화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얌전한 성격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향수병도 느끼게 되었지만 성직자의 도움으로 장부기록(Bookkeeping)공부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 사람들의 춤모임에서 Tony라는 이태리계통의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이는 곧 서로 정들게 되었고 그의 구애에 걸리는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 언니가 죽어 아일랜드의 엄마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Eilis가 떠나는 것을 알

이 영화의 주제는 새로운 정착지 미국의 뉴욕시와 자기가 나서 자란 정들었던 아일랜드, Brooklyn에서 만난 이태리계 첫사랑과 Ireland에서 만난 미남의 부유한 아이리쉬계 청년, 둘 사이에서 어느 쪽

[수필]

환희의 송가 패러독스



임연철 (문리대 72)

기도 귀찮아지고 음악계 사람들 만나고 싶은 생각도 사들해지고.

이제 음악회를 가려면 가슴은 떨리지 않고 다리가 떨려서? 그러나 아직 다리는 떨리지 않는데 가슴도 떨리지 않는다. 그런데 동기들을 만나는 동창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벗들과 만나 '구름처럼' 한잔 한다는 '환희' 때문이라.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라면 '환희의 송가'가 체격이다.

첫 귀절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 기쁨이여 낙원에서 온 말이어 화염과 같은 열정에 취해 우리 그대의 성소에 들어가노라...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18세기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의 송가(An die Freude)'는 읽기만 해도 기쁨이 솟고 인류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마음에서 느끼도록 해주는 마약 같은 매력 있다. "백만인이여 서로 껴안으라."는 시의 종결부 첫 부분을 읽을 때면 전쟁과 인종갈등으로 얼룩진 지구촌의 오늘을 생각할 때 시인 실러의 당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시만 읽어도 환희, 기쁨으로 가슴이 벅찬데 이 시에 곡을 붙인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합창」의 4악장을 들으면 저절로 숙연해진다. 「합창」 교향곡이 갖는 이런 마력 때문에 전 세계 교향악단의 대부분은 한 해의 대미를 이 곡으로 마감하게 된다. 지난 해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 12월 연주회 일정을 대략 조사해 봐도 10여 개 교향악단이 「합창」 교향곡을 연주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정명훈 예술 감독의 지휘아래 22일, 27, 30일 세 차례나 티켓 매진을 이어가며 공연했다. 특히 22일 공연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도쿄필과의 합동 공연으로 의미를 더 했다. 마음속으로 울림이 느껴지는 시를 유네스코 지정(2001년) 세계문화유산인 베토벤의 작곡으로 여기고, 이 곡의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으로부터 들을 때 그 감동이 남다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매년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공연인

연말에 한번 정도는 '합창교향곡'을 실험으로 들었는데 올해는 집에서 LP로 대신했다.

음악회 가기도 귀찮아지고 음악계 사람들 만나고 싶은 생각도 사들해지고.

같은 공연을 보지 못해 알 수 없지만 활력은 있었는데 환한 미소를 볼 수 없어 활력이 좀 떨어져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한 청중의 오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 달 27일 연주당일 터져 나온 정 감독 부인의 불구속 기소 뉴스와 오버랩되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전임 대표와 시향직원의 갈등사태로 1년 내내 압수 수색이나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10주년 잔치를 준비할 경황도 없었을 것이다.

시민에게 정서를 공급해 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치유의 멜로디를 들려줘야 할 교향악단이 진정서와 고소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기에 더해 '환희의 송가'가 노래되는 날 알려진 정명훈 감독 부인의 불구속 입건은 국면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정 감독은 입버릇처럼 "나는 음악 밖에 모른다. 행정은 관심 없다."고 했지만 정 감독의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인 구씨의 사건만으로도 그의 음악과 언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 감독은 단원들에게 고별편지를 띄우고 사퇴했지만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양미가 씻겨지질 않는다. 수사 중이리지만 자진 귀국해 조사받을 전망이 없어 보여 진실은 미국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음악으로 고국을 사랑했던 정 감독으로서의 지난 10년의 노력이 쓸쓸하게 마감돼 한스러웠겠지만 고별인사의 일부 구절에서는 음악인 정명훈이 느껴지지 않는다.

'음악 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 감독에게 음악은 존재(Sein)자체이다. 그러나 음악인에게는 꼭 해야 할 당위(Sollen)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한 정명훈 감독의 사퇴파동을 지켜보면서 '존재'와 '당위'의 문제가 새해의 화두로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훌륭한 음악인으로서 '존재'하는 정감독과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당위'의 문제들이 충돌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정 감독의 팬들에게는 아쉽기 그지없었지만 '당위'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제 한국 음악계는 포스트 정명훈을 생각해야 한다.

[체험] 콜리아웃과의 싸움



이재권 (법대 56)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늘은 구름과 비, 바람으로 가려 주는 양치를 어도 결코 무너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9일자 미주한국일보에서 “거대 재벌그룹 삼성의 수퍼 갑질”이란 기사를 읽었다.

기사의 내용은 LA에 소재한 한 기업체가 삼성전자로부터 30년 이상 사용하여 온 “삼성”이란 상호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장을 받고 재벌기업 삼성과 맞서기에는 역 부족이며 삼성과 맞싸우려다 자칫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호를 바꾸기로 하였으나 삼성 측에 요구한 “상호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비용의 부담은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될 경우 경제적 약자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막대한 소송비용과 자칫 패소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억울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본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나는 2004년 4월에 LA 근교에 있는 RV 리조트를 구입하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했다. 이 리조트 평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빌보드 광고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광고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옥외 광고회사요 또 미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3대 TV 방송국 중의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저들의 주장은 “내가 설치한 광고판을 즉각 철거하거나 아니면 응분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내가 전 소유주로 부터 물려받은 리스 계약서를 재검토한 결과 저들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결론을 갖고 오히려 저들에게 “리스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나의 광고판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저들의 광고판을 철거할 것”을 통고하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의 반격으로 자신심을 상한 광고회사는 LA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와 실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나는 변호사도 없이 내가 직접 저들과 싸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새우와 고래의 싸움으로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록 소수 민족이요 또 경제적 약자이지만 저들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었고 또 “미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소송은 나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늘 현재 나는 광고회사로 부터 소송 전에 비해 무려 8배가 넘는 렌트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 이후 변한 저들의 과분한 저 자세를 보면서 진정 미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요 또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좋은 나라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하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비록 힘은 없어도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작은 거인을 꿈꾸며



김학천 (치대 70)

북한에선 수박을 제일 좋아하는 단다. 겉과 달리 속이 온통 빨개서 당성이 아주 좋아 보이기 때 문이다. 반대로 사과 는 가장 적대시한다. 보기에 붉은 빛이 공산당원 같지만 실제 속은 하얀 반동 이라서 그렇다. 지어낸 얘기이겠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한다. 해서 고위간부들이 반동으로 숙청될 때 나 오는 말도 ‘구밀복검’ 아닌가? 입으로 달콤한 말을 하면서 배 속에 칼을 품고 있다는 거다.

‘진짜 거짓(True False)’처럼 상반된 말을 조합해 표현하는 것을 ‘모순어법(Oxymoron)’이라고 한다. 이런 이중적 양립은 우리의 삶 속에 많다. 현대인은 복잡다단해지고 바쁜 사회 속에서 사 람은 더 많아지는데도 오히려 ‘군중 속 의 고독’을 느낀다.

그리고 보니 요새 한국사회에서 혼자 밥 먹는 ‘혼밥’이 유행하고 혼자 술 마시는 ‘혼술’이 낭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이것이 영 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 말대로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외롭지 않기’ 때문만은 아닐 게다. 사생활을 우선시하면서도 ‘공공연한 비밀’이 다른 이들에게는 즐거운 가십거리가 되다 보니 아예 혼자 가 눈치 볼 것 없이 편안하다는 의식의 확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다가 설령 ‘괴로운 기쁨’과 ‘즐거운 고통’을 오가는 사랑에 빠진다 해도 말이다.

그래도 사랑은 추억이라도 남지. 사회에서나 정치판에서 애써 밀고 밀어주 었더니 정작 불일 다 본 후에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하는 뻔뻔한 자들의 ‘허울 좋은 추한 꼴’에 입은 배신감은 어찌할 건가? 이리저리 차여 누군가의 노래처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상심 속에서 교회라도 찾고 싶지만 신앙이란 허울 아래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삼위일체가 아닌 삼위분리에 설 곳마저 없는다.

그러나 이런 포장지와 속 내용이 다른 일들이 모두 어둡지만은 않아 그래도 살맛은 있다. 우리 삶을 맛나게 하기도 하고 한결 멋있게 하는 면이 더 많기 때문이다.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부른다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듣는 척하고 있다네’라고 노래하는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가 암울했던 시절, 젊은이들에게 고통과 울분을 터트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스펀이었던 것처럼. 또한 청마 유치환이 시 ‘깃발’에서 외쳤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상향을 찾아 그리워했던 우리의 목마름을 알아주었던 것처럼.

이렇듯 모순어법은 대립의 역설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 지쳐가는 마음에 힘찬 용기와 밝은 희망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 몸은 비록 작아도 뜻만은 크게 갖는 ‘작은 거인’을 꿈꾸어보는 게 어떨는지. 이제 새해를 맞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을 치게 끝내주는(Damn Good)’을 한 해를 만들어 가 보자.

그럼에도 사랑은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아크로폴리스 타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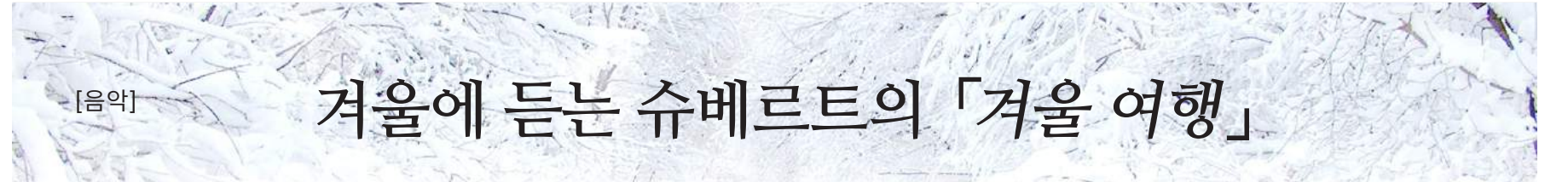
카테일 문화를 형성하였다.

수탁(Cock)에 꼬리(Tail)라는 말이 붙어서 생긴 카테일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다. 술집을 운영하는 한 남자에게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좋아하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젊은 남자가 장인이 될 술집 주인에게 주사위 게임을 신청해서, 술집 주인이 게임에 이기면 기분이 좋아질 테니 그때 청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주사위 게임에 계속 지게 되어 젊은이가 초초해 하는데, 그때 마침 술집주인이 주사위를 던지는 찰라에 한 수탉이 갑자기 크게 울어

깜짝 놀라면서 던진 주사위부터 게임이 역전되었다. 기분이 좋아진 술집 주인은 딸의 결혼을 승낙했고, 딸은 수탁의 꼬리 깃털을 주워서 게임이 끝나면 마시려고 했던 술을 저었다고 한다. 그날 마셨던 혼합주를 그때부터 카테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60년대말 공군에서 장교 생활을 할 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미 공군 장교 및 하사관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양주에 접하기 시작했다. 도미 후 42년간 외식을 할 때는 한식보다는 수많은 서양 레스토랑에서 여러가지의 서양 음식을 즐겨오고 있는데, 자연스레 각 각종 카테일을 주문해서 마시고 있다. 물론 집에서 몇 가지 카테일을 만들어 마시고 있다.

미국에서 멋진 음주문화를 즐기려 하는 우리 동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애주가의 한 사람으로 카테일에 대한 상식을 여러 회에 나누어 기술해 보기로 한다.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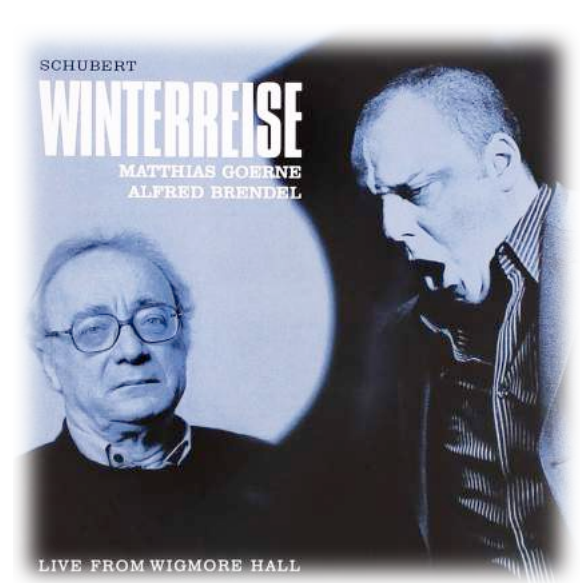
[음악] 겨울에 듣는 슈베르트의 「겨울 여행」



심회진 (음대 90)

올 겨울 처음으로 눈이 쌓이게 내렸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을 보며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친구와 나눈 통화가 생각났다.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요즘말로 하면 베프(베스트 프렌드의 준말)인 친구다. 최근의 근황과 궁금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서로 나누다, 그 친구가 하루 중 유일 슈베르트의 Winterreise(「겨울 여행」이 맞는 번역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겨울 나그네」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겨울 여행」으로 지칭한다.)를 들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겨울 여행」과 그 곡을 부른 가수들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누고 는 통화를 끝냈다.

오랜만에 나도 「겨울 여행」을 들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게 있는 「겨울 여행」 음반들을 다 꺼내 보았다. 너무나 유명한 연가곡이어서 명반도 많은데, 내가 사모는 음반만도 일곱 장이나 되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으로 오디오에 CD를 넣었다. 슈베르트의 「겨울 여행」은 빌헬름 필러의 시에 붙인 24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내용에 서술적인 연계성이 있거나 같은 주제나 분위기



마티아스 괴르네(Matthias Goerne)



토마스 크바스토프(Thomas Quasthoff)

를 가진 일련의 시에 붙인 가곡 모음집)이다. 빌헬름 필러 역시 33세에 요절한 시인인데, 아주 유명한 시인은 아니지만, 슈베르트는 그의 시를 좋아해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와 「겨울 여행」, 이렇게 두 개의 연가곡을 남겼다.

CD를 듣다보니, 대학 시절 친구들이 문득 떠오른다. 우리 학년에 유난히 바리톤들이 많아서, 「겨울 여행」 음반을 듣기 전에 친구들의 목소리로 익숙해진 곡들이 많아서다. 그 때는 가사도 잘 모르고, 그저 친구들 연습 때 혹은 연주시간에 반주해 주며 알게 되긴 했지만 말이다. 태림이, 태현이, 계한이, 그리고 은배 오빠 등 동기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불렀던 곡들과 함께 순간 소환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내 기억력이 이렇게 좋았나(?) 싶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런 내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음악이 가진 힘 때문인 것 같다. 음악은 일단 한번 내 기억에 각인되고 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바로 얼마 전에 들은 것처럼 생생해 지곤 하니까. 최근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그 당시 유행하던 가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곡들을 듣는 순간 잊고 있던 가사와 멜로디가 바로 소환되며 당시의 일이 떠오르곤 했던 건 나뿐이 아닐 것이다.

1번 곡 「밤인사」부터 마지막 곡 「노악사」에 이르기까지 전곡을 관통하는 주제와 분위기는 한 인간의 고독한 여정과 쓸쓸함이다.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5번 곡 「보리수」도 아름다운 멜로디 뒤에 숨어있는 가사를 보면 떠남과 안식에 관한 곡이다. 여기서의 안식은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으니 마냥 아름다운 곡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슈베르트가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겨울 여행」을 초연했을 때, 친구들도 이 곡의 어두운 분위기를 낯설어 하고, 5번 「보리수」를 제외하고 좋은 평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슈베르트는 “나는 이 곡 모두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친구들에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슈베르트가 이 연가곡집을 작곡한 것은 1827년, 그가 죽기 1년 전이었고, 그는 실제로 가난과 질병과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눈과 바람을 배경으로 하는 혼자만의 황량한 「겨울 여행」에는 낮은 바리톤이나 베이스의 음성이 더 호소력 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내가 가진 음반도 베이스나 바리톤이 부른 음반이 대부분이다. 「겨울 여행」의 명반 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Dietrich Fischer-Dieskau)나 그와 동시대를 풍미한 헤르만 프라이(Hermann Prey) 등 소개하고 싶은 음반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번엔 좀 젊은 가수들의 음반을 소개할까 한다.

두번째로 소개할 가수는 역시 독일의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Thomas Quasthoff)이다.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두 번 놀라게 된다. 처음엔 아름다운 음성에 놀라고, 그 다음엔 그가 장애를 지닌 가수라는데 놀란다. 그것도 해표상지증이라는 심각한 장애다. 입산부들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장애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크바스토프도 두 다리와 두 팔이 없이 두 발과 두 손이 그냥 엉덩이와 어깨에 붙어있

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장애가 화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연주료만 평가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의 음반에는 대부분 장애가 보이지 않도록 아예 부근까지만 나오는 사진이 실린다. 나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의 장애의 심각성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의 목소리는 가장 피셔 디스카우로부터 자신을 계승할 성악가로 인정을 받을 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그의 「겨울 여행」은 담담한 한 폭의 수묵화 같다. 따뜻하지만 과장을 하지도, 화려한 기교를 뽐내지도 않는다. 「겨울 여행」의 주인공은 지금 분명 불행하지만, 그 불행을 탓하기 보다는 그저 삶의 일부로 견고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수는 영국의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idge)이다. 그는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고, 1990년에는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특이한 이력의 가수다. 그래서 지적인 테너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붙지만, 그는 지성뿐 아니라 풍부한 감성도 겸비했다. 약간은 병약해 보이는 외모에 미려한 음성을 지닌 그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음반을 내왔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것이 독일 가곡이고, 그 중에서도 슈베르트의 가곡이다. 그 동안 슈베르트의 「겨울 여행」이 바리톤과 베이스의 전유물처럼 불려왔지만, 실은 테너를 위해 쓰인 연가곡이서인지, 예상 외로 보스트리지와 잘 어울려서 조금은 놀랐다. 막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idge)

실연당한 듯한 젊은이의 아픔과 감성이 잘 묻어나는 연주다. 한 프레이즈 한 프레이즈를 대단히 공들여서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시 몇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슈베르트 리사이틀에 가서 들었을 때보다 목소리에 힘도 더 붙은 것 같고 스테미너도 더 좋아진 느낌이다. 그 날은 컨디션도 좀 좋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극도로 예민하다는 느낌에, 눈도 내리깔고 부르는 게 그다지 호감이 가질 않았었다. 그 뒤에 그의 슈베르트 가곡집을 사서 들고는 다시 좋아하게 되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겨울 여행」은 들어볼 만한 좋은 음반이고, 조금은 어린 느낌의 테너 음성에서 다른 낮은 음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아무 때나 편리하게 돈 들이지 않고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소장한 음반을 듣는 것과는 그 느낌을 비교할 수 없다. 음반을 오디오에 넣고 감상할 때는, 한정된 예산에서 내가 사고 싶은 음반을 고를 때의 심사숙고와 마침내 결정하고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흥분과 짜릿함까지 함께 듣는 것이다.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한 장의 「겨울 여행」 음반과 함께 매혹적인 음악의 세계로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편집위원, Temple대학 강사>

[문화산책] 칵테일 상식 - 시리즈 1



김창수 (약대 64)

필자가 미국에서 살면서 즐길 수 있는 것 중에는 칵테일을 빼놓을 수 없다. 칵테일의 주 재료가 되는 각종 양주와 보조재료인 믹서(Mixer)를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실 수 있고, 다양한 서양 레스토랑에서 격조 높은 칵테일을 주문해서 음식과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칵테일(Cocktail)은 증류주에다 소다, 과일주스, 설탕, 과일주(Liqueur), 고미제(苦味劑) 등을 섞어서 만든 혼합주

(Mixed Drink)이다. 증류주에다 과일주만 섞으면 듀오(Duo) 칵테일이라고 하고, 여기에 믹서(혼합주를 위한 각종 보조재료)를 넣으면 트리오(Trio) 칵테일이라고 한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칵테일이란 말이 1803년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1806년 5월 13일자 뉴욕 주, 허드슨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The Balance and Columbian Repository)의 질의응답란(Q & A)에 칵테일이 “증류주에 설탕, 물, 고미제 등을 섞은 혼합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칵테일은 유럽에서 건너온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북미주에서 시작되어 지난 200년 이상 남성 애주가는 물론 술을 많이 못 하는 여성들도 즐겨 마시는 술로 발전되어, 지금의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2016 June 27 - July 29

GET AHEAD WITH A SUMMER IN KOREA

Calendar

- March 1 Beginning of Application Period
- April 4 Deadline for Early Applications & Payment
- June 8 Deadline for Applications & Payment
- June 27-28 Dormitory Check-in
- June 28 Opening Ceremony
- June 29 First Day of Classes
- July 28 Last Day of Classes & Closing Ceremony
- July 29 Dormitory Check-out

Contact us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SNU ISI)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F, CJ International Center(Bldg.152),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015, Korea

Email applyisi@snu.ac.kr
Tel +82-2-880-4449
Website <http://isi.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ld's Leading Knowledge Community

The miss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s to create a vibrant intellectual community where students and scholars join together in building the future.



ENJOY YOUR SUMMER WITH SNU

[과학]

‘전자피부’의 진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처럼 컴퓨터의 휴대성이 강화되면서 모바일 헬스케어의 인기가 높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휴대용 컴퓨터로 신체 변화를 감지하고 멀리 있는 의료진의 처방도 즉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모바일 헬스케어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을 꼽는다. 컴퓨터가 사람과 하나로 합쳐진 ‘전자피부(Electronic Skin)’가 그것이다.

◇실리콘에 주름잡아 신축성 부여
전자피부는 각종 센서와 메모리 등이 결합된 전자회로를 사람의 몸에 마치 실제 피부처럼 얇게 붙인 것이다. 1970년대 장애인용 의수(義手)에 센서를 부착하면서 처음 개념이 나왔지만 실제 가능성이 입증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피부에 붙이려면 잘 휘어져야 한다. 탄소 성분의 유기 반도체가 가장 적합한 소재였다. 문제는 속도였다. 유기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보다 느렸다. 전자가 더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리콘을 쓸 수도 없었다. 딱딱해서 구부리면 부서지기 일쑤였다.

촉각 느끼고 사람 손처럼 따뜻한 義手 약수해도 거부감 덜 느끼게 돼

2011년 미국 일리노이대 재료공학과의 존 로저스 교수와 김대형(공대 96) 박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얇게 만든 실리콘 회로 표면에 주름을 잡아 마치 고무처럼 잘 늘어날 수 있게 했다. 판박이처럼 붙이는 전자피부에는 근육의 전기신호를 감지해 심장 박동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센서가 들어갔다. 김 박사는 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휘어지는 실리콘 전자회로를 이용한 다양한 진단용 전자피부가 나왔다. 미국 네브래스카-링컨대 연구진은 유방암 진단용 전자피부를, UC샌디에이고 연구진은 미숙아의 뇌 손상을 진단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다. 최근 로저스 교수팀은 간질이나 수면 장애 환자의 뇌파를 검출하는 헬멧을 관자놀이에 붙이는 전자피부로 대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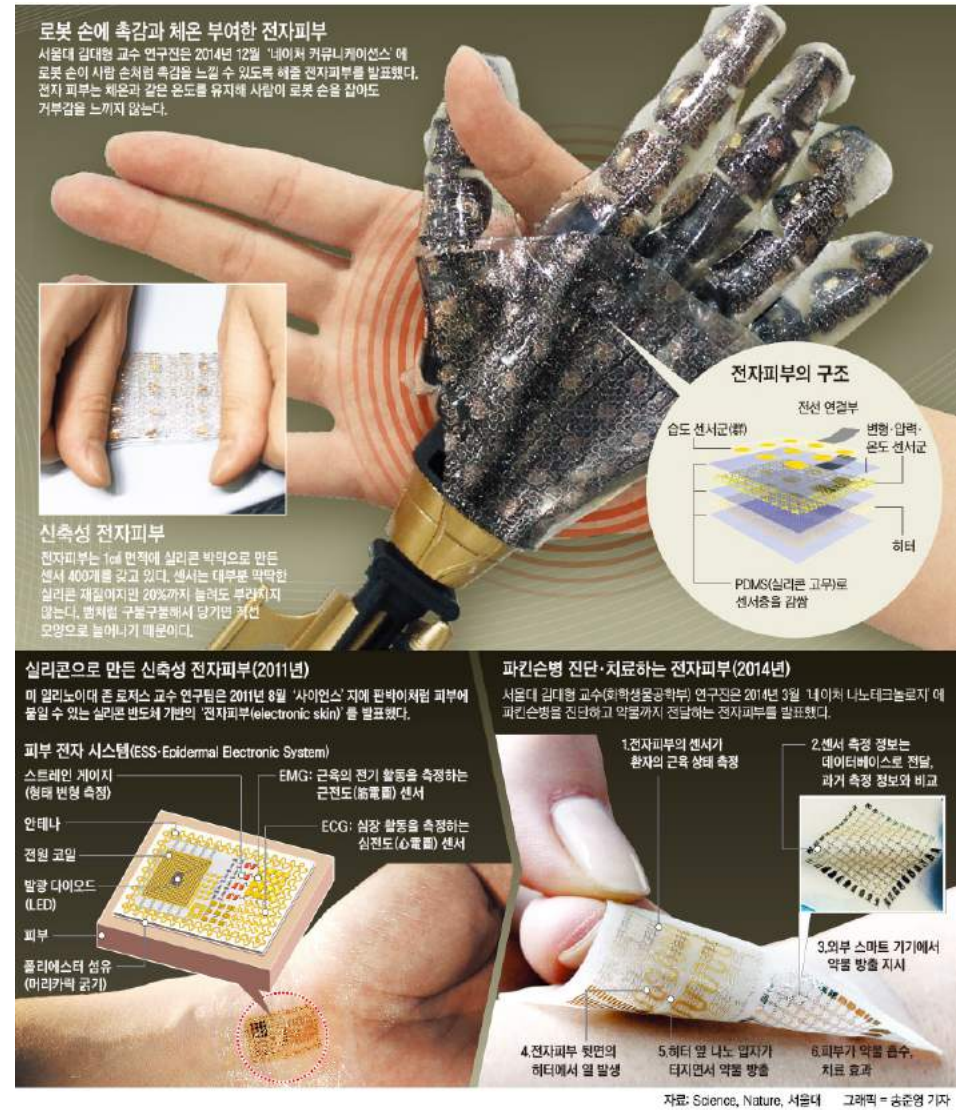
엔터테인먼트용도 나왔다. UC샌디에이고 토드 폴먼 교수는 뇌파를 감지해 게임 속 주인공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8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진은 몸에 붙인 전자피부로 모바일 기기를 작동

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진단과 약물 투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개념 전자피부도 있다. 지난해 김대형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파킨슨 환자용 전자피부를 발표했다. 센서가 파킨슨 환자의 근육이 뒤틀리는 것을 감지하면 내장 히터가 열을 올린다. 그러면 나노입자가 타지면서 약물이 나와 피부로 흡수된다. 이 전자피부는 약물 투여뿐 아니라 데이터 저장 능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덕분에 근육 센서가 측정하는 정보를 과거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

전자피부는 로봇 손에 사람 같은 촉각과 체온을 부여할 수 있다. 김대형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의수용(義手用) 전자피부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자피부가 감지한 촉각을 쥐의 뇌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전자피부에 히터도 달아 로봇 손에 체온과 같은 온도를 만들었다. 덕분에 로봇 손과 약수를 해도 거부감을 덜 느낀다.

◇오징어 먹물로 만든 ‘먹는’ 배터리
물론 전자피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배터리이다. 전자피부 자체는 얇게 만들었는데 배터리는 얇게 만들지 못했다. 폴먼 신경에 붙여 방광의 이상을 감지하는 전자피부도 있지만 여기에 기존



배터리를 이식하면 독성물질이 빠져나올 우려가 있다.

미국 케네디멜론대 크리스토퍼 베탁거 교수는 이른바 ‘먹을 수 있는 배터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독성이 있는 리튬 대신 나트륨이 전극을 오가며 전류를 만드는 배터리이다. 전극도 흑연 대신 안전한 갑오징어의 먹물로 만들었다. 가격도 상용화의 걸림돌이다. 지난달 텍사스대의 난수 루 교수는 인쇄 기법으로 전자피부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루 교수는 김대형 교수와 함께 2011년 실리콘 전자피부를 함께 개발했다.

<조선일보 참조>

[과학] 투명인간 가능? 영화 속 ‘투명인간’ 만드는 약, 현실에 등장

‘액트-프레스토’ 기술을 이용해 실험용 쥐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뼈까지 투명해지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면역염색 기법을 이용해 뼈를 붉은색으로 염색했다. - 고려대 의대 제공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인 ‘투명인간’을 실제로 만드는 ‘약’을 동물 연구진이

개발했다. 생체조직이 투명해져 빛을 통과하는 구조가 되는 원리로 내장기관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어 의료 분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의대에 재직 중인 선웅(서울대 분자생물학과 87) 교수팀은 생체를 초고속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원하는 부위만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인 ‘액트-프레스토(ACT-PRESTO)’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체 내 지질막 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험용 동물의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은 기존에도 있었다. 하지만 투명화 시키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였다. 가령 쥐의 뇌 조직을 투명화하려면 2~4주가 걸렸다. 생체 깊은 곳이 위치한 조직을 염색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조직을 투명화하는 속도를 최대 30배 가량 크게 높였다.

쥐의 뇌를 투명화하는 데는 6시간, 쥐 신체 전부를 투명화 하는 데는 12시간이 걸렸다. 또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 생체 조직을 염색하는 방법인 ‘면역염색’에 쓰이는 항체의 침투력을 향상시켜 조직 깊



영화 투명인간(Hollow Man, 2000) 감독 폴 베어호벤 Paul Verhoeven)의 한 장면

은 곳까지 원하는 부위를 염색할 수 있도록 했다.

선 교수는 “투명화 기술은 장기 속까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각종 장기를 연구할 때 핵심기술”이라며 “특히 뇌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11일 자에 실렸다.

‘이달의 사진’을 모집합니다.

새해부터 ‘이달의 사진’이라는 새로운 난을 개설합니다(25면 참조).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경치, 자연, 삶의 모습, 점사 등 장르에 상관없이 동물들과 나누고 싶은 직접 찍으신 고품질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매달 우수작을 선정, 소개하고, 연말에 ‘올해의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통창 칼럼터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문화]

투탄카멘과 파라오의 황금시대



최용완 (공대 57)

일본의 왕족은 한반도에서 왔다고 지난 2001년에 일본의 왕이 말하였다. 삼국시대에 백제가 신라에 쫓기는 무렵 일본으로 옮겨간 듯하다. 그보다 1,000년 이전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디서 온 왕족일까?

소는 농경생활에 오랫동안 사람과 동반자이고 동남아시아에서 일찍부터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어온 짐승이다. 개는 6만 년 전에 동북 아세아 사람이 늑대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동아시아의 흉산문화는 요동반도의 남쪽에서 들어온 농경생활과 북쪽에서 내려온 목축생활이 융합되어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 가장 일찍 형성된 장소였음이 세계 고고학계에 최근에 밝혀졌다. 이집트 문화보다 2,000년을 앞섰다.

동아시아의 신석기시대 고인돌은 천체와 조상이 연결된 종교양식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청동유물이 고인돌에서 발굴되어 금속문화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유적이기도 하다.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부에 석탄이 풍부하여 금속과 철기생산이 쉽게 이루어졌고 나침반을 만들고 말이 이끄는 전차(Chariot)의 바퀴 축을 생산하였다. 투탄카멘이 즐겨 타던 전차를 자세히 관찰하면 몸통을 동아시아의 청동기

아세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11년 10월에 전시하였다. 지난 2015년 11월 15일까지 LACMA에서 전시하였고 지금은 OC 아나하임 MUZEO 박물관에서 2016년 1월 말까지 전시한다. 이들 전시품은 이집트의 전문 공예 수공가들이 가문에 대대로 물려오는 기술을 동원하여 유물 하나하나와 똑같이 재현한 복사품들이다. 전시된 투탄카멘의 무덤은 전실, 별실, 현실, 그리고 유골사당, 모두 4개의 방으로 나누어졌다. 입구에서 전실에 들면 입구 건너편에 별실이 연결되었고 2개의 전차(Chariot)가 해체된 모습으로 여러 개의 바퀴들과 함께 흩어져 있다. 전실의 가구들은 궁전의 식에 사용되는 가구들이고 별실에 아무렇게나 쌓여진 가구들은 왕의 사생활 가구들이다.

현실은 투탕카멘의 미라가 보관된 방으로 전실에서 현실의 입구가 옆으로 나있어 현실과 유골사당은 일직선으로 방향을 맞추었다. 현실 안에 미라는 4중 외관으로 보관되었고 그 속에 3겹의 내관으로 모두 7겹으로 층층이 보호하고 있다. 내관마다 가면과 장식이 왕의 앞모양을 장식하여 다시 목숨을 얻어 살아남을 준비하였다. 현실의 발쪽에 유골사당은 미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거된 시신의 유골을 보관한 사당이다. 사당의 주위에 4 여신이 지켜서 있고 현실에 미라를 향하여 소의 신이 자리를 잡았고 그 앞에 개의 신이 함께 현실을 향하여 지켜보고 있다. 많은 동물들이 그림과 조각물로 장식되었지만 실제 무덤 안에서 사람과 함께 영생을 나누는 역할은 소와 개만이 동반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플라톤(Plato)이 찾았던 아트란티스(Atlantis)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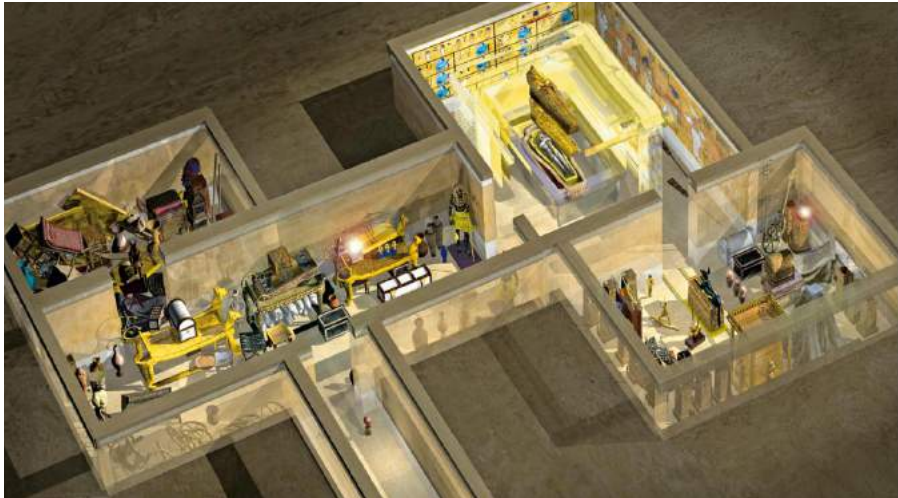
에서 흔히 보는 '갑긴 실 무늬'로 감싸서 장식하였다. 전차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시작되어 진시황제 용경에서 발굴된 4 마리의 말이 끌아가는 완벽한 전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완벽한 전차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

묘를 발굴한 하와드 카터는 깨진 도자기에서 닭의 그림을 보고 파라오의 음식에는 아프리카에 없는 닭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닭은 원래 동남아시아의 대나무 숲에 자라는 벌레를 먹고 자라던 날지 못하는 새였다고 한다. 사람이 농사짓기 시작하는 날부터 농가에 들어와 사람이 먹는 곡식을 얻어먹으며 사람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음식에 아직 닭이 없을 때에 닭을 먹는 이들 왕족은 아프리카를 찾아 온 이방인이었음을 암시한다.

파라오 가구와 그림에서 고구려 벽화에서 보듯 사슴사냥하는 그림을 자주보고 전차를 타고 흑인과 아랍인들을 정벌하는 모습도 자주 본다. 소와 개의 신이 지키는 사당은 보물방이라고 부른다. 가장 깊은 곳에 시신의 유골과 함께 가장 귀중한 보물들이 보관한 곳이다. 소와 개가 시신의 영혼을 동반하였고 보관된 유물들 중에 크고 작은 배들의 모형이 있다. 그 중에 돛단배는 원양항해를 하는 배다. 투탄카멘의 유골과 함께 보관된 원양항해의 배는 그들의 고향이 소와 개들과 함께 사는 머나먼 나라이었음을 상상하게 한다.

동아시아인과 혈연이 같은 북남미 대륙에 원주민은 동아시아인과 생활풍습도 방불하다. 마야와 인카 문명에 석조 피라미드는 아프리카의 것과 크기가 유사하고 멕시코 시 교외에 해와 달 피라미드 앞에는 쫓겨가는 청룡이 조각되었다. 동아시아 문화가 지난 수 천 년 동안에 동쪽으로 전해지는 동안에 서쪽으로도 전해졌다. 누에고치에서 비단을 만들어 지중해까지 찾아가서 팔던 때 쓰이던 비단길(Silk Road)은 그보다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 사람들이 열어놓은 길이다. 훈족이 그길 따라가서 로마를 정벌했고 몽골이 짧은 세월에도 달려가서 유럽을 정벌한 길이다.

말을 달려 사슴을 사냥하고 집에서 개와 닭을 기르고 소와 함께 밭을 가는 동아시아 나라들의 역사에는 수많은 귀족들의 권력 다툼들이 이어져 왔다. 전차를 달리며 싸우다가 필사의 도망을 쳐서 멀리 떠난 기록도 허다하다. 한반도의 왕족이 일본에 처음 국가를 설립했듯 동아시아의 왕족이 지중해에 나일강까지 찾아가 수만 년을 앞선 동아시아 인의 지혜가 흑인과 아랍인의 노동력을 만나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의 화려한 역사를 일구어내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한다. 아마도 플라톤(Plato)이 찾았던 아트란티스(Atlantis)는 동아시아인 듯 싶다. <눈설위원>



[부고] 워싱턴 DC 지부의 홍인희(공대 58) 동문께서 투병 중 1월 18일 별세하셨습니다. 고 홍 동문께서는 광산과를 졸업 후, Penn State University에서 기계공학 박사 취득 후, US Dep. Of Energy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부인 홍영희 여사와 1남 2녀 자녀들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사진



EXIF: Canon 7D, Lens EF 24-105mm @47mm, 20sec., f/5.6, ISO 1000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달무리개를 Yosemite Fall 앞에서 보름달을 등지고 찍다. 사진: 이성형(공대 57)

독자의 광장

2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ua.org

편지실 아저씨, 아주머니들 귀하: 평소 동문회지를 꼼꼼히 체크하며 읽는 우리집 사람(71학년 가정대 식영과)이 이번달의 "나눔" 난의 글들을 읽고서 매우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특히 손재욱 회장의 체험담이 많은 감동을 주었던지 특별히 언급을 하더군요.

여러가지로 변모하는 동문회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모두가 편집실 본들의 창의적인 노력의 덕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 평한 된 운동권 색깔의 수구적인 글들이 많이 사라진 것도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끝으로 저의 졸고를 실어주시 정말 감사 합니다. (진실로) 이번 "내사랑 향이"는 끝을 맺는데 정말 애를 먹었기에 편집실 눈치가 많이 보였었습니다. 결국 향이가 내레이터 "나"와 바람이 나는 식의 요즈음 안방 드라마같은 속물적인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처음 이야기를 기획할 때부터도 작정을 했었지만,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향이를 성녀로 만들게 되어 너무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특히 항상 제 옆에 버티고 계시는 최후의 검열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점도 있었고, (ㄱㄱ)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니 이야기 전개에 좀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편집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계속적인 건투와 동문회지의 변장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호(공대 66)>

이번 1월호 회보 3면 논설 기사 중에서 "동창회 정신"(김인수, 사대 55, NE)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부분에서 필자의 주장을 피력했으나 그 의견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지 않아서 너무 추상적인 비판(?)으로 흐른 감이 있었습니다. 과거 미주동창회를 운영해 본 전인 회장단 임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현 실무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필자의 동창회를 위한 충정에 감사드립니다. <오인환(미주동창회 제12대 회장)>

동창회보 11월호에 실린 사설은 "국가의 리더는 국민이 화합하고 동의하는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의는 100%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참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중략) ...동창회보 사설의 제목인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진정한 처방은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이란 기본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만행과 실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현실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상을 편견없이 진술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세들에게 좌편향한 검정 교과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실히 기술한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요 절박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이재권(법대 56)>

[공트]

매부의 십자가



전호억 (공대 67)

‘따르르릉...’ 새벽 4시에 웬 전화일까?

“여보세요-”
“...잣땀구나. 자네도 깨워 미안하구만...”
“.....”
“나 ... 미안한데 지금 좀 와줄 수 있겠어? 의논할 말이래 있어서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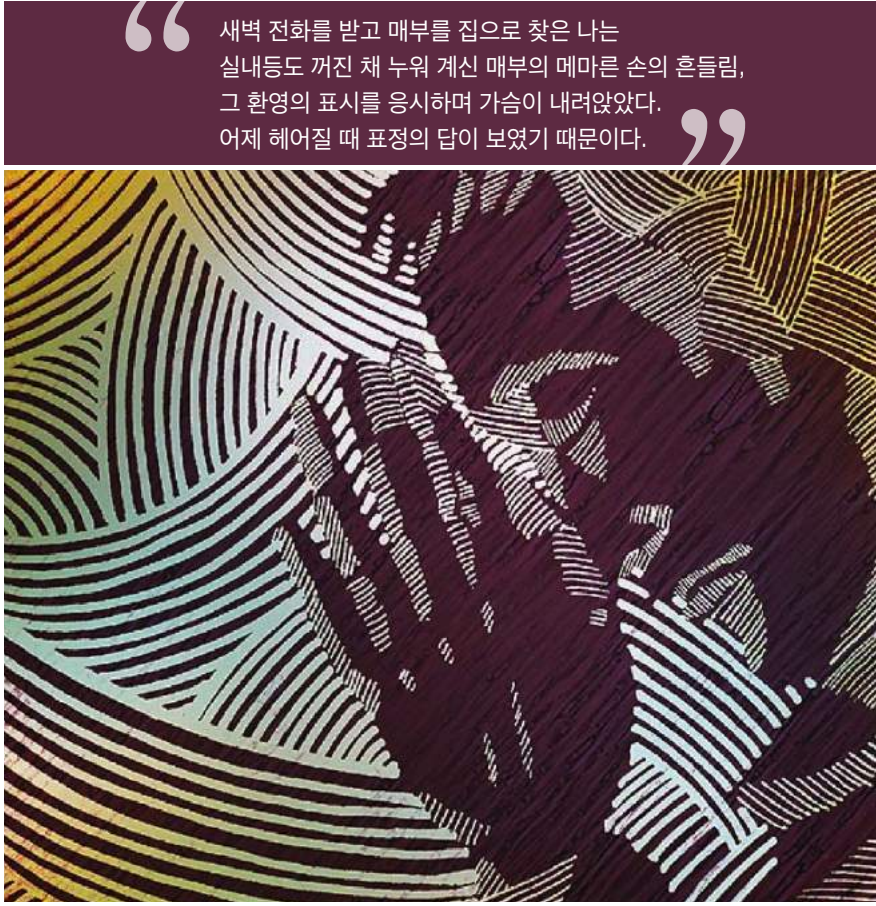
피안도 말씨 매부 전화다. 무슨 일일까... 어제 저녁 뵈을 때 무겁던 표정이 맘에 걸린다.

매부를 처음 만난 때는 1953년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 해 7월 27일 휴전으로 한국전쟁이 마무리됐는데,李承晩대통령께서 휴전으로 이북에 송환될 인민군 포로 중 자유 대만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반공포로’를 석방한다고 선포하셨다. 유엔군사령부는 절대 반대였지만 수용소 철조망이 군데군데 제거되고 국군 헌병의 엄호 하에 인민군 포로를 석방 탈주시켰다.

유엔군은 무장 지프차로 탈주 포로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석방된 반공포로는 수용소 인근 주민들이 동포애를 발휘,전원 은신을 도와줬다. 이런 까닭에 유엔군 MP수색대는 단 한 명의 반공포로도 찾아내지 못했고, 또 그를 역시 수색만 할 뿐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 李承晩대통령의 인민군 반공포로 석방은 대성공을 거뒀다. 참으로 위대하신 결단이다.

李承晩 대통령 덕에 우리 식구가 된 훗날의 매부는 반공포로 석방까지 청년기에 파란이 많았다.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 총알받이로 일본군에 징집된 매부는 고향 친구들과 탈영, 일본열도를 사람을 피해 산맥을 타고 해마다 10월이 다 지나 해방된 소식을 알았으니 그 고생을 소주한 잔하시면 안주 삼아 두고두고 옛날 이야기처럼 하셨다.

수학에 천재성이 있어 북한 최고과정을 졸업한 후 북한 엘리트 급수 기술자였던 매부는 친형이 월남했다고 속청 대상이 돼 전쟁 중 월남을 시도하신다. 월남도 순탄치 않아 황해도 재령에서 9·28 서울 수복으로 도망 중인 인민군 패잔병 부대에 붙들려 북으로 다시 끌려가다 극적으로 탈출하고, 구사일생으로 인천까지 와서 미군 트럭을 얻어 탔는데, 그 트럭이 부산 연산리 제14야전병원 포로수용소로 수용되는 포로 트럭이어서 운명적인 포로 신세가 됐으니 매부의 청춘은 소설로 쓰면 문학상급이다.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 09)

겁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며 매부의 일기장을 보여주셨다.

-1977년 7월 17일
고향 동무 영복이와 초복날이라고 복달임을 했다.

‘어디 불편해? 오늘 소주 넘김이 시원치 않네.’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다. 개고기에 가시가 만부당하는데...

-1977년 8월 1일
가시가 걸린 것이 덧이 났냐? 이비인후과엘 갔다. 식도에 뿔이 있으니 큰 병원

엘 가란다.
-1977년 8월 22일
식도암으로 판정받고... 하필이면 삼키지 못하는 식도암인가 생각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 미치광이던 나를 탓해본다. 절망적 상황을 가족에게 숨기려 해도 식도암의 특징은 물과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결정적 징후 때문에 자연히 가족들이 눈치챌 것이다.

-1977년 12월 2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올 성탄이 가족과 같이 보내는 마지막 성탄일까... 남편 원 사진관엘 갔다. 영정사진을 찍으려...

-1977년 12월 17일
성탄 판공성사를 보았다.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내 큰 뜻이로소이다. 다른 때와 달리 고해 성사가 길어졌다. 이 판공성사가 내가 볼 마지막 판공성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1978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 온 가족이 떡국을 나누는데 국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했다. 벌써 일주일째 나의 식도는 그 기능을 잃었다. 앞으로

“새벽 전화를 받고 매부를 집으로 찾은 나는 실내등도 꺼진 채 누워 계신 매부의 메마른 손의 흔들림, 그 환영의 표시를 응시하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제 헤어질 때 표정의 답이 보였기 때문이다.”

론 다시 마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무섭다. 요즘은 모든 영양을 수액에 의존한다. 야마도 죽는 날까지...

누나와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렇게 파란 많던 매부의 일생인데 이렇게 끝을 맞이할 것인가...

시한부 생을 알고 고통받았을 마음을 생각하고 가슴이 저려왔다. 매부 서재에는 눈에 띄지 않던 건감식, 자연식 등 대체 치료 서적이 즐비해져 있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인데, 애엄마가 반사회에 갔다가 순복음교 구역

장을 만났다는 것이다.

“자기가, 순복음교 구역장 24동 아줌마 있지, 그 아줌마 자궁암 말기로 전신으로 암이 퍼져 수술도 포기하고, 집에서 죽기만 기다렸는데, 치유능력 있는 모 전도사님 안수도 완치됐대. 담당의사가 기적임을 인정했다며 꼭 안수 받게 해드라래.”

나는 우리 성당 주성배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다. “교파가 다른데, 신부님... 용산의 모 전도사가 치유기도 능력이 있다고 누가 추천하는데 기도 받으러 가도 될까요?”

“물론 오케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교파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마음 편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기적을 만드는 용산 천막 교회 전도사는 멀리 캐나다에서도 안수치료 받으러 온단다. 매부는 우리 에 엄마와 24동 구역장 아줌마의 인도로 용산 천막 교회에 가서 이틀간 안수기도를 받았다. 첫날은 통증이 많이 완화되더니, 2일째는 물도 마셨다. 벌써 몇 달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링거액으로 수분을 공급해오셨는데 참으로 기적의 순간이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확실합니다.” 전도사는 치유에 대한 확신이 차서 말씀하셨다고 애엄마가 전한다. 몇 달 만에 물을 삼킬 수 있었던 그날 저녁, 누나네는 축제 분위기였다.

“매부 축하드려요. 안수기도로 새 생명 받으셨네요.” 온 가족이 반기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니 매부도 애써 기쁜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되고 온 가족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부의 표정은 천근의 추가 달린 듯 무거워 보였다. 왜였을까?

새벽 전화를 받고 매부를 집으로 찾은 나는 실내등도 꺼진 채 누워 계신 매부의 메마른 손의 흔들림, 그 환영의 표시를 응시하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제 헤어질 때 표정의 답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 안수기도 받으러 가지... 앉으려다.” “.....”

“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봤어. 내가 술 한 방울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게 된 까닭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30년, 주님을 모독해왔기 때문이야. 삼킬 수 없던 고통은 나를 망치는 술을 더 넘기치 말라는 계시였어. 고백의 기도 경문의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나의 큰 뜻이로소이다’라는 참뜻을 이제야 알았어.”

새벽의 여명이 창 커튼 새로 비치면서 희색빛 암환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어젯밤 꿈꿈이 생각해보니 나의 암 덩어리가 모두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어. 수많은 세월 이웃 사랑은커녕, 나 자신마저 미워하고 학대한 죄를 기워 값을 나의 십자가...”
(모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수필가)

동창회비 (2015.7 ~ 2016.6)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RS Tax Exempt 번호-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문인일(공대 51)	이영모(의대 53)	한종철(치대 62)	차대양(공대 55)	조화유(문리 61)	송창원(문리 53)	배상규(약대 61)	허병렬(사법 42)	정태광(공대 74)
Alaska	문일영(음대 66)	이영신(간호 77)	한홍택(공대 60)	최병두(의대 52)	진금섭(약대 57)	왕규원(의대 56)	서병선(음대 65)	허선형(의대 58)	지재원(사대 68)
윤재중(농대 54)	민병곤(공대 65)	이영일(문리 53)	현기웅(문리 64)	최해숙(의대 53)	진학송(약대 82)	황효숙(사대 65)	신종철(의대 57)	허유선(가정 83)	정학량(약대 56)
하인환(공대 56)	민병돈(문리 58)	이원일(문리 73)	현순일(문리 58)	최희수(의대 67)	차인경(가정 77)	최경수(문리 58)	손갑수(약대 59)	홍선경(의대 58)	정종택(상대 61)
Arizona & NM	박경호(사대 53)	이원택(의대 65)	현윤석(법대 64)	하계현(공대 64)	한익일(공대 62)	김택수(의대 57)	손경택(농대 57)	황 윤(약대 81)	조정현(수의 58)
박양재(약대 48)	박노면(사대 50)	이익덕(신분 70)	황동하(의대 65)	한익일(공대 62)	최규식(상대 64)	김택수(의대 57)	손병우(문리 69)	Ohio	김동광(공대 62)
이경화(공대 56)	박병원(의대 49)	이익삼(사대 58)	황만익(사대 59)	한재은(의대 59)	최정미(사법 55)	최정식(의대 61)	송기인(의대 60)	김용현(경영 59)	김용현(경영 59)
유기석(문리 60)	박부강(사대 64)	이재권(법대 63)	홍경삼(문리 61)	함성택(문리 55)	한익생(수의 60)	최창식(의대 61)	송기인(의대 60)	명인재(자연 75)	명인재(자연 75)
지영환(의대 59)	박승희(간호 70)	이재룡(공대 71)	홍병익(공대 68)	황치룡(문리 65)	홍영석(공대 58)	최창식(의대 61)	송병문(공대 62)	안순자(의대 56)	안순자(의대 56)
California	박우성(상대 77)	이재룡(공대 71)	홍성선(약대 72)	DC & MD & VA	홍영식(공대 58)	고일석(보건 69)	송세열(문리 51)	이종열(의대 61)	이종열(의대 61)
강경수(법대 58)	박원준(공대 53)	이재선(농대 58)	홍수용(의대 59)	Florida	홍수용(의대 59)	김민소(수의 61)	송영순(사대 60)	김동규(공대 62)	김동규(공대 62)
강동순(법대 59)	박인수(공대 54)	이정근(사대 60)	홍수용(의대 59)	Carolina	김도중(사회 81)	김선혁(약대 59)	송영순(사대 60)	김동규(공대 62)	김동규(공대 62)
강영호(의대 57)	박인창(농대 65)	이정욱(가정 71)	김영호(의대 57)	이달호(사대 46)	김준희(의대 71)	라찬국(의대 57)	안재현(상대 60)	이영준(의대 56)	이영준(의대 56)
강재호(상대 57)	박자경(사대 60)	이정욱(공대 52)	이항열(법대 57)	이범세(의대 59)	김창욱(의대 55)	박종진(의대 56)	안홍원(농대 61)	이명준(의대 64)	이명준(의대 64)
강정수(문리 61)	박제인(약대 60)	이정화(공대 52)	이항열(법대 57)	김순옥(간호 66)	공순옥(간호 66)	송두영(공대 75)	양명자(사대 63)	이영웅(의대 56)	이영웅(의대 56)
강정훈(의대 56)	박중수(수의 58)	이종묘(간호 69)	Chicago	곽근영(사대 51)	곽근영(사대 51)	송순영(문리 52)	임종열(의대 61)	최인갑(공대 57)	최인갑(공대 57)
강중경(공대 48)	박찬호(농대 63)	이준호(상대 65)	강화영(문리 50)	곽명운(공대 61)	곽명운(공대 61)	송용덕(의대 57)	이의인(공대 68)	Ohio	김삼만(음대 46)
강희창(공대 57)	박찬호(자연 81)	이중희(공대 53)	고광국(공대 54)	김창욱(의대 55)	김창욱(의대 55)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고영순(음대 59)	박취서(약대 60)	이창우(공대 54)	고광국(공대 54)	김준희(의대 55)	김준희(의대 55)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기상(경영 72)	박태호(치대 66)	이정(농대 61)	고광국(공대 54)	김준희(의대 55)	김준희(의대 55)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권영재(문리 57)	박홍우(문리 61)	이재진(문리 55)	김갑중(의대 57)	김동훈(법대 56)	김동훈(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권오형(사대 61)	방명진(공대 73)	이흥기(공대 62)	김국록(공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명자(법대 52)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경옥(미대 61)	변영근(수의 52)	이홍표(의대 58)	김규호(의대 58)	김석희(의대 54)	김석희(의대 54)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재완(의대 57)	배동완(공대 65)	이혜원(공대 56)	김사직(상대 59)	김사직(상대 59)	김사직(상대 59)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광은(음대 56)	배병욱(음대 58)	임동규(미대 57)	김성일(공대 68)	김안정(문리 59)	김안정(문리 59)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교복(농대 63)	백소진(문리 55)	임동호(약대 55)	김승주(간호 69)	김영기(공대 73)	김영기(공대 73)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구자(미대 61)	백옥자(음대 71)	임문빈(상대 58)	김연화(음대 68)	김영덕(의대 53)	김영덕(의대 53)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규현(의대 53)	백정애(공대 69)	김영주(공대 69)	김정일(의대 61)	김종진(의대 60)	김종진(의대 60)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기태(의대 54)	성나호(치대 63)	임창희(공대 73)	김일훈(의대 51)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낙구(상대 67)	손기용(의대 55)	임준수(의대 57)	김재석(의대 67)	김형민(상대 84)	김형민(상대 84)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동산(법대 58)	손선형(간호 69)	임화식(치대 59)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동호(농대 59)	손학식(공대 61)	장기창(공대 56)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병완(공대 58)	송기성(사대 52)	장 준(인문 85)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병호(상대 57)	신동국(수의 70)	전낙관(사대 60)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상은(약대 58)	신정연(미대 61)	전범수(농대 71)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석두(농대 59)	심기린(상대 57)	전상옥(사대 52)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석홍(법대 59)	심상은(상대 54)	전성대(사대 60)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선기(법대 59)	안병일(의대 63)	전원일(의대 77)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수영(사대 57)	안병협(공대 58)	정규남(공대 52)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준일(법대 54)	양승문(공대 65)	정동구(상대 57)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순자(치대 57)	양은혁(상대 56)	정동주(가정 72)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원경(약대 59)	양창호(상대 54)	정예현(상대 63)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영춘(수의 64)	염동해(농대 64)	정우석(의대 58)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윤범(의대 59)	위종민(공대 64)	정진수(공대 56)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인중(농대 74)	윤경민(법대 55)	정현진(간호 68)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일영(의대 65)	윤용길(공대 55)	정 현(공대 64)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정복(사대 55)	윤희성(치대 65)	제영해(가정 71)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정희(음대 56)	이건일(의대 62)	조동준(의대 57)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준일(공대 62)	이규달(의대 62)	조만연(상대 58)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종표(법대 58)	이기재(사대 52)	조부상(법대 70)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현왕(공대 53)	이명선(상대 58)	조상하(치대 64)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홍목(문리 60)	이명재(상대 54)	조정시(공대 60)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홍현(공대 56)	이문상(공대 62)	조재길(사대 61)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김희재(사대 63)	이방기(농대 59)	조태묵(사대 60)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나두섭(의대 66)	이범식(공대 61)	주경래(상대 65)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김삼만(음대 46)
나승욱(문리 59)	이병준(상대 55)	주성래(상대 65)	김재석(의대 67)	김창호(법대 56)	김창호(법대 56)	정영득(의대 58)	이의인(공대 68)	Rocky Mt.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광관도매) 이병준(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신대식 공인회계사 신대식 (상대 60) Tel.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 (상대 56) Tel.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hung@yahoo.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치과 배운범 치과 배운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부동산 / 클리닉 Team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광고문의: (484) 344-5500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內)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록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C),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tJ-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후원회비:	전상욱(사대 52) 500	DC & MD & VA	김상순(상대 67) 200	김명혜(미대 77) 500	업소록 광고:	김창수(약대 64) 300
Arizona	제영혜(가정 71) 300	강길중(약대 69) 200	Pennsylvania	Virginia	김순욱(의대 54) 240	김혜정(문리 82) 2,600
박양세(약대 48) 200	전원일(의대 77) 200	김진수(의대 60) 100	김국간(치대 64) 200	박평일(농대 69) 300	김순주(치대 95) 240	분당서울대병원 400
California	정동구(공대 57) 300	권철수(의대 68) 200	김금자(간호 63) 200	백 순(법대 58) 200	김일영(의대 65) 100	국제진료센터
김정수(문리 61) 200	하기환(공대 66) 500	이선구(문리 65) 200	김순주(치대 95) 200	서윤석(의대 62) 200	김창수(약대 64) 240	서울대미주재단 1,000
김병연(공대 68) 300	황만익(사대 59) 200	이영목(공대 59) 200	김종휘(약대 54) 200	Washington	박희진(농대 78) 240	유재환(상대 67) 1,000
김 영(수의 63) 500	Colorado	NJ & NY	송영두(의대 56) 200	김성렬(치대 61) 200	신동국(수의 76) 100	윤상래(수의 62) 400
김종표(법대 58) 200	송요준(의대 64) 200	NY Chapter 2,000	이만택(의대 52) 200	이경림(상대 64) 240	이전구(농대 60) 1,500
박범순(가정 70) 100	Georgia	김명철(공대 60) 200	이성숙(가정 74) 300		이병준(상대 55) 480	임낙균(약대 64) 1,500
박자경(사대 60) 200	주중광(약대 60) 1,000	김정수(약대 64) 500	이지춘(미대 57) 200	Brain Network 후원금:	이상대(농대 80) 120	이승훈(상대 74) 1,800
박종수(수의 58) 1,000	Hawaii	문석면(의대 52) 200	전부식(수의 61) 200	한재은(의대 59) 500	이영일(문리 53) 400	최정웅(공대 64) 500
백옥자(음대 71) 200	김승태(의대 57) 200	민준기(공대 59) 1,200	전방남(상대 73) 100		이재덕(법대 60) 240	차민영(의대 76) 1,000
양승문(공대 65) 200	김창원(공대 49) 200	손병우(문리 69) 200	지홍민(수의 61) 200	모교발전기금:	이재원(법대 60) 200	
안해정(가정 77) 100	Heartland	이강홍(상대 60) 500	정학량(상대 56) 260	강재호(상대 57) 200	이종묘(간호 69) 240	Website 광고:
염동해(농대 64) 500	이상강(의대 70) 5,000	이준행(공대 48) 1,000	손재욱(가정 77) 25,000	김순덕(간호 61) 500	이준영(치대 74) 100	김혜정(문리 82) 500
위종민(공대 64) 300	이은미(자연 83) 200	이홍빈(의대 57) 200	최중문(상대 61) 200	임영자(간호 61) 500	주기록(수의 68) 240	K-Shopping 500
이건일(의대 62) 200	최은관(상대 54) 200	조정현(수의 58) 125	Rocky Mt.	정명숙(간호 61) 500	최종문(상대 61) 240	JG Business Link 500
이병준(상대 55) 1,000	구행서(공대 69) 200	최한용(농대 58) 200	송요준(의대 64) 100		디자이너 광고:	International, Inc. (이원로)
이 청(농대 61) 50	이용락(공대 48) 300	Ohio	Texas	Golf 후원금:	김광호(문리 62) 9,000	
임춘수(의대 57) 200	최희수(문리 67) 100	최인갑(공대 57) 200	진기주(상대 60) 200	이전구(농대 60) 500	김인종(농대 74) 1,000	
		Oregon	Utah	NE Chapter 100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연 \$1,0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240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	<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종신 이사회비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a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MBA (주간)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주간 MBA (Global MBA, SNU MBA)

| 원서접수: 2016. 2. 1(월) ~ 3. 25(금) *인터넷 접수: <http://gsb.snu.ac.kr>

| 과정특징

- ▶ 2016. 8. 16 입학 예정
- ▶ 16개월 과정 (4학기)
- ▶ 평일 주간 수업
- ▶ Global MBA 전 과정 영어강의
- ▶ SNU MBA 트랙선택 가능(금융/전략기획/마케팅 트랙)
- ▶ 해외 32개국 48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복수학위, 교환학생, 단기연수 등 국외수학 기회 풍성
- ▶ MBA 경력개발실이 주관하는 1:1 커리어 코칭 등 MBA 레벨의 특화된 경력개발서비스 지원

| 입학문의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EL: 02.880.2551 / 1334 Email: mba@snu.ac.kr

홈페이지 <http://gsb.snu.ac.kr>

